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朝鮮後期 勉菴 崔益鉉이  
濟州教育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仁琪

2011年 8月

朝鮮後期 勉菴 崔益鉉이  
濟州教育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梁 鎭 健

金 仁 琪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8月

金仁琪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1年 8月

【국문초록】

朝鮮後期 勉菴 崔益鉉이  
濟州教育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김 인 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논문<sup>1)</sup>은 朝鮮後期 대내적·대외적 國家의 危機狀況에 적극적이며 實踐的으로 시대의 선두에 서서 당대의 양심과 고뇌를 행동으로 구현한 勉菴 崔益鉉이 濟州島 流配期間 동안 濟州教育에 미친 影響을 研究한 것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論者は 이상과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考察하고 자한다.

첫째, 勉菴이 시대적 狀況과 生涯를 통해 위정척사사상과 민족주의 결합이 教育思想과 教育方法論에 어떻게 影響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둘째, 조선조 교학질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異質的인 제주도의 교학적 특성을 면암의 교학활동을 통해 살펴보는 작업이다.

셋째, 流配期間 동안 제주도에에서의 教學活動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넷째, 면암의 위정척사사상의 影響으로 제주도의 의병활동과 비밀결사, 민족교육 운동으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면암의 활동한 시기는 封建社會가 무너져가고 西歐列強과 日本이 집요하게 韓半島를 침략하던 시기였다. 이시기에 면암은 大院君의 秕政을 보고 과감히 소장을 올려 대원군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대원군의 10년 세도의 막을 내리게 하고 제주목에 위리안치의 名을 받았다.

면암은 제주도 流配期間 동안 많은 濟州文士들과 師弟關係를 맺는데 이를테면 당시 詩學으로 제주도 일인자였던 金羲正은 면암의 제주도 1대 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면암과 從遊往來했던 제주 문사인 安達三은 면암과의 관계를 통해 勉菴

1) 이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과 노사학과의 奇正鎮과 만남을 성사시키기도 한다.

또한 면암의 衛正斥邪思想은 濟州島 義兵活動을 점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그리고 면암의 家學的 承繼를 한 李膺鎬 등이 秘密結社 조직인 集義契를 태동시키는데 思想的으로 큰 역할을 한다. 면암의 척사사상은 제주도의 조천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일제시대의 다양한 제주도 民族教育運動으로 再現됨으로써 제주교육의 면모를 새롭게 함은 물론 해방이후 제주도 4.3사건의 저변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역사적 변환기에 살았던 勉菴이 濟州流配 期間 동안 濟州教育에 끼친 影響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제주교육을 있게 한 역경과 극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教訓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 目 次

I. 序論 .....	1
II. 勉菴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	3
1. 勉菴의 生涯 .....	3
2. 時代的 背景 .....	9
3. 大院君의 改革政治 .....	11
4. 勉菴의 濟州島 流配 路程 .....	17
III. 勉菴의 教育思想과 方法論 .....	20
1. 朝鮮後期 教育思想의  경향 .....	20
2. 勉菴의 教育思想과 教學方法論 .....	23
IV. 勉菴의 濟州教學活動과 結果 .....	25
1. 朝鮮後期 濟州儒林의 教育實狀 .....	25
2. 勉菴의 濟州教學活動 .....	27
3. 濟州教育에 끼친 勉菴의 影響과 意義 .....	41
가. 義兵活動과 秘密結社 .....	41
나. 民族運動으로의 展開 .....	44
V. 結論 .....	48
參考文獻 .....	51
Abstract .....	53

## 그림 목차

- [그림 V-1] 朝鮮後期 性理學的 衛正斥邪思想의 系譜 ..... 22
- [그림 V-2] 勉菴의 思想이 濟州 義兵活動에 미친 影響 系譜 ..... 43

## I. 序 論

朝鮮後期는 재래적 傳統價値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한 激變期였다.

國內的으로는 封建秩序가 점차 해체 되면서 이를 존속시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西歐 문물을 유입하려는 勢力 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對外的으로는 開港이나 丙寅洋擾(1866) 등 日帝, 西歐의 강요에 의한 不可抗力적인 歷史的 事件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朝鮮朝 體制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었는데 당시의 對外的 挑戰에 대하여 正統 性理學의 문맥에서 政治體制의 보위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 衛正斥邪思想이다.

이 思想은 丙寅洋擾 등으로 西洋의 위협이 가시화 되자 吾道(儒學)를 지키기 위해 洋賊과의 타협을 극렬히 반대한 蘆沙 奇正鎭, 華西 李恒老 등 朝鮮後期 巨儒들의 上疏를 통하여 불붙기 시작한 思想으로 華夷論的 世界觀에 바탕을 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大院君의 勢道政治로 인한 書院 撤廢, 三政의 紊亂, 景福宮 重建을 위한 願納錢, 結頭錢, 城門稅 등 새로운 세금의 억지 徵收로 인한 세정의 불공정으로 國家經濟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고, 이러한 大院君의 稅政은 사회적 병폐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勉菴은 당시 執權者인 大院君의 政策에 대해 道學的 義理論에 따라 「정사가 옛 법을 변경했고 인륜이 무너졌다.( 政變舊章彝倫敦喪)」는 上疏를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다. 이 上疏가 大院君 10년 牙城을 봉괴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勉菴은 1년 반 동안 濟州島에 圍籬安置를 당하게 된다.

濟州島는 朝鮮王朝 5백년을 통하여 대표적인 流配의 섬이었다. 李健은 「濟州風土記」 말미에 「탐라는 온 나라의 죄인의 유형지요. 유배는 나라의 엄중한 형벌이다(耽羅通國之罪地而流竄邦家之重典也)」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濟州島는 水陸千里에 교통이 불편하고 本土와 멀리 떨어진 絶海孤島라는 지리적 與件으로 인해, 朝鮮後期 哲宗, 高宗, 純宗에 이르는 약 60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60여명의 流配人들이 귀양살이 했던 곳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勉菴 崔益鉉 등과 같이 學文과 知德을 겸비한 巨物 政治人이자 學者들이 많이 流配됐고, 島內 자제들이 그들에게 사사하여 그들의 學文과 思想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시대를 주름잡던 指導層에 속하는 엘리트 그룹(Elite Group)들이라 詩文을 남겼거나 教育을 통해 弟



子를 養成하는 등 이들이 濟州島에 教育에 미친 影響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이전 까지만 해도 出陸抑制政策에 의해 금지될 수밖에 없었던 出陸에 의한 直接 教育이 이시기에 들어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教學的 自生力이 증대되었으며 이로써 濟州島 나름의 특유의 教育文化가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濟州島에 流配된 면암의 衛正斥邪思想은 濟州島의 獨特한 教育文化 形成에 影響을 준다.

勉菴은 謫所를 濟州城內에 있는 尹奎煥의 집으로 정하여, 校宮에 간직된 尤庵集을 빌어 潛心玩索하며 지방 선비들과 교류하는 한편 教學活動에도 전념하였다.

濟州 文人 安達三, 金義正, 姜基碩, 金龍徵, 金燾, 金致塔, 金養洙 그리고 李基璫, 姜哲鎬 등과 '往來從遊'했고 실제 勉菴 자신이 文人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勉菴의 影響으로 濟州 儒林의 思想的 變化 또한 斥邪運動의 성격으로의 변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勉菴의 斥邪思想은 朝鮮後期の 義兵運動과 日帝時代의 民族教育 運動, 抗日運動의 母胎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本 研究는 朝鮮 後期 勉菴의 濟州島 流配 期間(1873. 12. 4 ~ 1875. 4. 12.) 중 심으로 濟州教育에 끼친 影響을 밝혀내는 연구이다.

첫째, 勉菴이 시대적 狀況과 生涯를 통해 위정척사사상과 민족주의 결합이 教育 思想과 教育方法論에 어떻게 影響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둘째, 조선조 교학질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異質的인 제주도의 교학적 특성을 면암의 교학활동을 통해 살펴보는 작업이다.

셋째, 流配期間 동안 제주도에서의 教學活動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넷째, 면암의 위정척사사상의 影響으로 제주도의 의병활동과 비밀결사, 민족교육 운동으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朝鮮後期 濟州教育史의 내용을 확충하고 濟州教育史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으로 가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勉菴의 濟州教學活動의 文獻 資料가 많지 않아 口傳이나 추측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現實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部分的인 資料들을 참고하여 再構成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作業을 통해서나마 勉菴이 끼친 朝鮮後期 濟州教育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기대한다.

## II. 勉菴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 1. 勉菴의 生涯

勉菴은 諱는 益鉉 子는 贊謙, 貫鄉은 慶州이다. 아버지는 의정부 찬정 岱(子는 士宗, 號는 芝軒), 어머니는 慶州 李씨이다. 純祖 33년 癸巳(1833)12월 5일(음) 戌時에 抱川縣 內北面 加采里(現 京畿道 抱川郡 新北面 加采里) 本家에서 芝軒의 次男으로 出生하였다. 父母가 매우 사랑하여 兒名을 奇男이라 하였다.

4세 때 큰 凶年으로 家勢가 어려워 아버지를 따라 단양으로 거처를 옮겼다.<sup>2)</sup> 6세(헌종 4년) 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聰明하고 智慧가 뛰어나서 보는 이는 모두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9세(헌종 7년) 때에 金琦鉉에게서 修學하였으며 11세(憲宗 9년) 때에는 지헌공을 따라 청풍에서 배를 타고 양근 후곡에 와서 집을 빌어 살았다.

勉菴이 本格的으로 修學을 하게 된 것은 華西 李恒老의 門下에 들어간 14세(헌종 12년)때 부터이다. 당시 華西 先生이 蘖溪에서 道를 강설하니 사방의 배우는 이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지헌공이 그의 名聲을 듣고 往來하면서 從遊하여 심복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勉菴에게 명하여 華西에게 나아가 뵈고 제자의 禮를 닦게 하였다. 華西가 한번 보고서 이미 그가 범상한 人物이 아님을 알고 誠心으로 교도하여 돌보고 사랑함이 特別하여서 <洛敬閩直> 네 글자를 큰 글씨로 써 주어 勸勉하였다. 겨울에 下直할 적에는 읽던 『書社輪誦』 책 끝에 다음과 같이 써서 전송하였다.

「崔秀奇男이 날마다 이 책을 외어 한 자도 착오가 없었고 또 손수 써서 높이 걸어두고 碗琰처럼 보배롭게 여기고 고량진미처럼 즐기니. 이미 그 大義를 깨달은 것이 아니면 어찌 이 같을 수 있겠는가? 기남이 외던 것은 『擊蒙要訣』, 『大學』과 『大學章句』까지, 『論語』와 『論語集註』까지, 그리고 古今 사람의 文字가 몇 천 마디 말이었는데도 熟達함이 이와 같으니, 세월이 쌓이게 되면 奇男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책은 尊經閣이 될 것이다. ....」<sup>3)</sup>

2) 民族文化推進委員會, 『國譯勉菴集3』, 民文庫, 1989. 5面.

3) 『勉菴集』 年譜, “崔秀奇男日誦此編不錯一墨既又手寫而尊閣之寶之若琬琰嗜之若膏粱非已曉解其大義安能如是陶

15세(헌종 13년) 때에도 계속 벽계에서 修學하였는데 당시 동문인 愧園 李竣, 錦川 任圭直, 莞爾 李寅龜, 重菴 金平默, 弘菴 朴慶壽, 省齊 柳重教 등과 함께 函筵(函筵, 화서를 말함) 에 출입하면서 조석으로 강론하니, 蘇湖洛의 기풍이 있었다. 同文들 모두 勉學에 열중하였으나 그중에서도 勉菴의 학문은 一進月步하여 華西 先生의 사랑과 同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 해 겨울에 하직할 때 華西 先生이 <勉菴> 두 자를 큰 글씨로 써서 주었다. 이<勉菴> 두 자가 후세 학자들에게 의하여 그의 雅號로 호칭되고 있다.

17세(憲宗 15년) 때에는 藥溪에서 柳省齊와 함께 작문법 등을 배웠다.

18세(哲宗 원년) 때에도 벽계에서 『朱子大全』, 『尙書』 등을 공부했으며 華西 先生과 함께 雪嶽山 등을 遊覽하며 見聞을 넓혔다. 이 해에 여름에 華西 先生이 <存心明理> 네 글자를 대자로 써서 주었다.4)

22세(哲宗 5년) 때에는 전 가족이 포천 가채리로 이사했다. 成均館에서 유숙하면서 경서 공부를 하였는데, 成均館에 있는 지 1년도 못되어 三經을 자기 말처럼 두루 외니, 老師宿儒도 勉菴을 따를 수 없었다.5)

勉菴은 23세(哲宗 6년) 때 明徑科에 及第하여 出仕한 이래 官門의 출입이 잦았으나 <愛君如父 愛國如家>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官途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주로 衛正斥邪運動에 專念하였다.

登科한 그해 6월에 權知承文院副正字로 任官한 勉菴은 成均館典籍(哲宗 7년, 24세)을 거쳐 順康園守奉官(哲宗 8년, 25세), 司憲府持平(哲宗 10년, 27세), 司諫園正言(동년), 吏曹正郎(哲宗 11년, 28세), 新昌縣監(哲宗 13년, 30세), 成均館直講(高宗 2년, 33세), 司憲府 持平(高宗 3년, 34세) 司憲府掌令(高宗 5년, 36세), 承政院同副承旨(高宗 7년, 38세) 등 여러 官職을 歷任하여 수봉관으로서 지방관으로서, 또 言官으로서 責務를 다했을 뿐 아니라 不義와 不正을 참지 못하는 剛直한 性品の 소유자였다.

그 실례를 들면 순강원수봉관으로 있을 때 어떤 서울 사람 하나가 禮曹判書의 權勢를 믿고서 원내에 장사를 지낸 자가 이었는데, 勉菴이 시체를 매장한 것을 파가도록 하고 禮曹判書를 찾아가서 大義로 꾸짖은 사례가 있다. 또 신창현감으로 있을 때 충청감사 兪章煥이 私債 問題로 民政을 어지럽게 하니 이에 불가함을 말하였으

菴先生口誦手抄。勸課後生之苦心可謂不墜於地也奇男所誦者擊蒙要訣，大學並章句論語並集註及古今人文字幾千言泥醬爛熟如是而積以日月奇男之腹笥其將爲一尊經閣也”

4) 前揭書, 8-11面.

5) 前揭書, 13面.

나 끝내 듣지 않아 官職을 내놓고 귀가한 태도를 들 수 있다.<sup>6)</sup>

당시 政局은 勢道政治의 餘波로 紀綱이 紊亂하였다. 王權 代行者로서의 大院君 勢道政權의 가장 큰 목표의 하나가 李朝 王朝王權을 強化하는데 있었으며 그 象徴으로서 景福宮의 重建이 강행되었다. 따라서 工事費用을 마련하기 위해 願納錢, 結頭錢, 城門稅 등 새로운 세금이 억지로 徵收되었고 當百錢의 무리한 발행으로서 社會的 混亂을 가져왔다.

36세(高宗 5년) 때 言官 司憲府掌令으로 있던 勉菴은 <時弊四條疏>를 올려 토목 역사를 중지하고, 聚斂政治를 금하며, 當百錢을 革罷하고, 4대문 門稅徵收를 禁止하라고 주장하여 大院君을 攻擊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官職이 削奪되었으나 오히려 그의 名聲은 이로부터 온 나라에 퍼졌다. 이 上疏는 당시 司憲府掌令이라는 言官의 職責을 가진 勉菴으로서는 正當한 직무의 수행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당시 王權 代行者의 大權限을 쥐고 있던 大院君에게의 정면 도전은 대단한 勇斷이었다. 言路가 막히고 民政이 切迫하였는데, 勉菴의 이 疏가 한번 나오자 君子는 鳳鳴朝陽을 일컫고 야인들은 태평만세를 불렀다.<sup>7)</sup> 이와 같은 대담한 태도는 다는 勉菴의 강직한 人品, 憂國之士的인 人格, 衛正斥邪的인 大義名分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勉菴이 평소 학문적으로 쌓아 올린 春秋大義의 이념과 爲國愛民의 信念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sup>8)</sup>

大院君의 稅政은 날로 심해져 갔다. 41세(高宗 10년) 때에 承政院 同副承旨에 제수되고서는 同職을 辭退하는 上疏를 올리면서 大院君의 稅政을 공격하여 그토록 위세 당당하던 大院君의 勢道를 沒落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疏에 대하여 大院君은 자기의 黨與를 總動員하여 반박하고 勉菴의 처벌을 주장하였으나, 이미 萬機를 親裁하기로 결심한 高宗은 勉菴을 斗護하여 戶曹參判에 제수하고, 勉菴 糾彈에 나선 儒生과 요로 대관을 도리어 處罰 逐出하는 동시에 11월 5일에는 만기천재의 뜻을 朝報로 반포하였다. 그리고 大院君이 전용하던 出入門(金虎門)도 하루아침에 閉鎖하고 말았다.

같은 해 11월 3일에 다시 戶曹參判을 辭職하는 上疏에, 五條大義를 붙여 전에 다하지 못한 뜻을 폈다. 그러나 三司의 彈劾과 모든 관인들의 공격으로 勉菴은 禁府에 피수되어 官職이 削奪되고 濟州島에 圍籬安置의 命을 받았다.<sup>9)</sup>

6) 前揭書, 14-25面.

7) 前揭書, 19-21面.

8) 洪淳稔, 『勉菴 崔益鉉 先生의 思想과 生涯』, 霞汀徐延德教授華甲紀念學術論叢, 1977. 420面.

이 流配는 약 2년 후 1875년(高宗 12년, 43세) 3월에 풀렸는데 한참 일할 수 있는 勉菴에게 큰 타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閔妃 一族의 政權 壟斷, 그들의 奸策에 의 한 濟州道 流配 등 새로운 사태에 처한 勉菴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進路를 決定해야 할 일대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轉換點에 선 勉菴은 大義名分을 잃은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를 깨끗이 청산하고 春秋大義로써 爲國愛人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勉菴의 衛正斥邪思想은 愛國忠義의 實踐理念으로써 發動하기 시작한 것이다. 勉菴의 이와 같은 굳은 결의와 그 實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그 뒤의 그의 行動이 잘 입증하고 있다.

勉菴은 工曹判書(高宗 31년, 62세), 각부군 선유대원(建陽 1년, 64세), 의정부 찬정(光武 2년, 66세), 궁내부특진관(동년), 경기도 관찰사(光武 9년, 73세) 등 要職을 배수하지 않고 <丙子持斧上疏>를 위시하여 많은 上疏를 올려 쓰러져 가는 國運의 回復을 渴求 하였고 심지어는 義兵까지 일으켜 外侵으로부터 國權을 守護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勉菴의 衛正斥邪를 위한 實踐運動은 流配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화 하였으며 그 첫 번째가 일본과의 丙子修護條約을 決死反對한 <丙子持斧上疏>이다. 이 上疏에 의하여 勉菴은 또 다시 흑산도로 流配되는 悲運을 맞이하였으나 勉菴의 굳은 信條와 信念은 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外壓의 증대에 따르는 國內의 政治 狀況의 變化는 그의 信念을 더욱 굳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衛正斥邪思想도 變遷하는 歷史的 狀況 속에서 思想的인 發展을 가져 왔고 또 實踐 方法에 있어서도 큰 變化를 가져 왔다. 즉 言論에 의한 개인적 평화적 衛正斥邪의 政治 運動으로부터 집단적 무력적 衛正斥邪의 政治 鬪爭으로 변화하였고 배타적인 國粹主義로부터 민족의 自主意識을 토대로 한 자각적인 民族主義로 변질하여 갔던 것이다. 前者는 義兵運動에 의하여 實踐되었고 後者는 抗日 民族運動에 의하여 계승되었다.<sup>10)</sup>

<丙子持斧上疏>로 인하여 44세(高宗 13년) 때부터 47세(高宗 16년)까지 흑산도 流配 生活를 마친 이후 勉菴은 한동안 沈默하였다. 주로 讀書과 동문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學問과 經綸을 深化시켜 나간 시기였다. 沈默하고 있던 시기는 國內의 정세가 매우 번잡했던 때로서 壬午軍亂, 甲申政變, 東學運動, 淸日戰爭 등의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9) 勉菴集1, 解題4.

10) 洪淳稔, 421-422面.

日本의 侵略行爲가 점차 露骨化하여 王朝의 運命을 威脅하였을 뿐 아니라 淸日戰爭의 勝利로 그들의 自慢心은 날로 높아만 갔다. 淸日戰爭은 三國干涉 으로 勝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의 立場이 不利하게 되자 수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親淸的인 明成皇后를 殺害하고 親日政權을 수립하는 蠻行을 자행했다. 이것이 이른바 乙未事變(1895, 高宗 32년)으로서 그들의 天人共怒할 蠻行은 對日感情을 더욱 惡化시켰을 뿐 아니라 親日政權에 의한 <斷髮令>은 傳統을 崇尚하는 儒林들을 격분시켰다.<sup>11)</sup> 이 두 事件을 계기로 勉菴도 오랜 沈默 끝에 <請討逆復衣制上疏>를 63세(1895, 高宗 32년) 때에 올려 日本의 內政干涉을 糾彈하고 外세에 추부하는 관료와 그들에 의한 일련의 改革을 비난하였다. 勉菴은 斷髮令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內部大臣 兪吉濬에 의해 체포되어 典洞에 監禁되었다. 이것은 斷髮令을 적극 반대하는 勉菴의 뜻을 꺾음으로써 전국적인 斷髮令을 속행하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으로, 兪吉濬은 詔勅과 武力으로 威脅하였으나 勉菴은 의연한 태도로,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吾頭可斷 髮不可斷).”고 강력하게 거부하였다.<sup>12)</sup>

王妃 殺害와 衣制改革, 斷髮令에 반대하여 全國 곳곳에서 義兵이 蜂起하자 건양 원년(1896)에 각지의 義兵들을 宣諭하여 鎮壓시키라는 선유대원의 勅令이 내려지자 이에 <辭職疏>를 올리고 오히려 義兵의 부득이한 哀情과 討逆의 不可避性을 聲言하였다.

66세(1898, 光武2년) 때는 議政府 贊政에 任命되었으나 <辭議政府贊政疏>를 올리고 출사하지 않았고 10월에 다시 上疏하여 時務十二條를 올려 修武備 明大義 등의 懇曲한 哀情을 밝혔으며 다시 宮內府特進官에 임명하였으나 <辭職疏>와 함께 討逆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勉菴이 68세(1900, 光武 4년) 때는 호서의 定山(지금의 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리)으로 이사를 하고 義兵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렀다.

72세(光武 8년)에 高宗은 날로 기울어져 가는 國勢에 勉菴의 協贊을 얻기 위하여 密諭를 내리고 이어 宮內府 특진관, 의정부 찬정 등의 벼슬로 불렀으나 모두 辭讓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勉菴은 날로 기울어져 가는 國運을 좌시 할 수 없어 동년 12월에 수옥헌에 入對하여 高宗에게 시급한 정무 5조를 柚筭로 올렸다. 이리

11) 洪淳稔, 423面.

12) 勉菴集3, 99-105面.

하여 反日巨頭로 지목된 勉菴은 73세(1905, 광무9년) 2월에 日本軍 司令官 長谷川好道에게 逮捕되어 監禁되었으나 長谷川好道는 勉菴의 嚴正한 義理와 軒軒한 氣魄에 놀려 수일 후에 勉菴을 포천으로 押送하였다. 勉菴은 다시 서울에 올라와 日本의 奸計와 國事の 日非를 밝히려는 上疏를 준비하던 중 逮捕 되어 監禁되었다가 정산으로 押送되었다.<sup>13)</sup>

이해 10월 21일에 倭賊 二等博文이 乙巳5條約을 만들어서 朝廷을 威脅했는데 賊臣 朴齊純, 李址鏞, 李根澤, 李完用, 權重顯의 무리가 함부로 調印하기 許諾하여 危殆하던 國脈이 이에 이르러 끊어져 버렸다.

이에 11월에 5條約 反對의 <請討五賊疏>를 올리는 한편 <布告八道士民>을 발표하고, 12월에 충남 노성 闕里祠에 同志들을 모아 정월 22일 진위에 일제히 모여서 목숨을 걸고 糾彈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倭賊이 그 기미를 廉探해 알고 진위에다 軍士를 두고 막았다<sup>14)</sup>.

亡國의 恨을 품은 勉菴은 74세(1906, 光武 10년)의 高齡으로 최후 수단인 義兵活動에 투신하기로 決心하고 1906년 2월에 家廟에 訣別을 고하고 하남으로 내려가 自身の 弟子이자 前 樂安 郡守인 林炳瓚을 찾아 義舉를 준비한 뒤 태인 武城書院에서 <倡義의 疏>를 올리고 全國에 <倡義檄文>을 사방에 돌리며 왜국 公使館에 <寄日本政府書>를 보내 그들의 罪目을 聲討하였다. 義兵은 井邑 淳昌을 거쳐 谷城에서 示威하고 다시 淳昌으로 回軍, 6월에 倭軍에 의하여 攻擊을 받게 되었다. 공격군의 대부분이 全州와 南原의 두 鎭衛隊임을 전달받고 이들이 倭兵이라면 마땅히 死戰으로 決判을 내어야 하나 同族相殘은 할 수 없다고 의병에게 對抗을 중지시켜, 결국 勉菴은 林炳瓚, 高石鎭, 崔濟學, 金箕述, 文達煥, 梁在海, 林顯周, 李容吉, 趙愚植, 趙泳善, 羅基德, 柳海塔 등과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押送되어 왜의 司令部에 拘禁되었다.

勉菴은 怨恨을 歷史에 남긴 채 日軍에 의하여 사랑하는 강토를 등지고 日本 對馬島 警備隊에 幽人의 몸이 되었다(1906년 7월). 勉菴은 의거 때 이미 죽음을 覺悟했었기 때문에 살아 올 생각은 秋毫도 없었다. 그는 유소를 임병찬에게 委託하고 最後의 抗拒로서 獄中斷食을 하였다. 이에 希望을 잃고 쇠약해진 高齡의 몸인지라 鬪爭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74세(1906, 光武 10년) 11월 17일 獄死의 悲運을 당하였

13) 勉菴集3, 110-161面.

14) 前掲書, 167-188面.

다. 勉菴의 遺骸가 釜山에 도착(同年 11월 21일)하자 男女老少 수 만명의 弔客이 운집하여 그 哭聲이 땅을 흔들었고 定山 本第에 安置될 때까지 路邊에는 수 만명의 弔問客으로 長蛇陣을 이루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國葬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舉族的인 國葬이며 愛國愛族에 생명을 바친 勉菴에 대한 舉國的인 哀悼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勉菴의 殉國에 대하여 온 겨레가 다 같이 슬퍼하였다는 것은 民族正義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意義가 있다. 그리고 그 崇高하고 고매한 勉菴의 情神은 그 후 義兵의 抗日精神으로 또 일제치하에 있어서의 民族運動, 獨立運動의 정신으로 承繼 發展 하였다.<sup>15)</sup>

## 2. 時代的 背景

勉菴이 주로 활동한 시기는 登科하여 出仕한 1856년(哲宗 10년)부터 對馬島에서 殉國한 1906년(光武 10년)까지이다. 그 시기는 封建社會가 무너져 가고 서구열강과 日本이 집요하게 韓半島를 侵攻하던 약 半世紀 동안이다. 당시의 時代的 狀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勉菴의 思想을 바로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 세력들이 霸權을 다투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던 朝鮮은 西歐列強들의 朝鮮에 대한 접근은 곧 西歐 資本主義 商品市場 開拓의 일환이었다. 이 시기에 英國人은 濟州島 海岸地方(加派島)의 牧場에 와서 여러 번 소(牛)를 掠奪하기도 하였다.<sup>16)</sup>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있어 西歐人들은 朝鮮에 侵入하여 威壓的으로 通商을 強要하려고 하였다.<sup>17)</sup>

大院君 勢道政權期로 접어들면서 歐美 各國의 通商 要請과 侵略은 더욱 積極化되자 1866년(高宗 3년) 天主教 彈壓의 敎令이 포고되어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학살당한 것을 필두로 불과 몇 년 사이에 國內 信徒 8,000여 명이 학살된 丙寅迫害가 일어난다. 이후 丙寅迫害 때 살아남은 프랑스 페롱신부는 유태系の 獨逸 상인 오페르트(Ernst Oppert)와 함께 大院君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실패하였고 또 美國의 상선 서어먼호(General Sherman)가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와 交易

15) 洪淳稔, 425-426面.

16)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181面.

17) 『韓國近代史』, 創作과批評社, 1991, 67-68 面



을 요청, 거절당하자 民家를 약탈하고 백성을 감금하는 등 蠻行을 저질렀고 이에 화가 난 평양군민들에 의해 배가 불타고 船員 全員이 죽임을 당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大院君 政權은 더욱 強硬策으로 맞섰고 마침내 프랑스 艦隊가 강화도를 한 때 점령한 丙寅洋擾(1866, 고종 3년)가 일어났다. 大院君의 天主教 迫害를 피해 淸國으로 도망한 리델神父 들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 極東 艦隊 司士官 로즈(Roze)는 군함 7척으로 침입하여 宣教師 處刑의 책임을 물으면서 江華島를 점령하였다.

大院君 政權은 和議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버티다가 마침내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戰鬥에서 프랑스군을 敗北시켰다. 프랑스군은 패한 뒤 철수하면서 外奎章閣을 불태워 버리고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귀중한 圖書와 文化財를 약탈하고 금괴, 은괴 등을 탈취하여 물리갔다. 敵과 대치중에 奇正鎭은 衛正斥邪論을 여섯 개 항목에 걸쳐 上疏를 올렸고, 高宗은 前 掌令 李恒老(1792-1868)를 承政院의 同副承旨로 등용하여 國難에 대처할 時務策을 진언케 하였다.

李恒老는 奇正鎭과 더불어 근대 조선의 衛正斥邪思想의 2대 原流를 이루는 巨儒이다. 李恒老는 上疏를 통해 국내에 主戰論과 主和論의 두 입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主戰論者는 朝鮮편의 사람이나 主和論者는 敵편의 사람이라고 단정하였다. 당시 奇正鎭, 李恒老의 衛正斥邪 上疏는 上下官民의 思想的 統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18)</sup>

한편 당시 대(對)아시아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 美國은 6월 10일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을 江華島의 초지진에 上陸시켜 武力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과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 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美軍은 이곳에서 朝鮮政府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朝鮮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大院君의 강경한 通商修交 拒否政策과 朝鮮 民衆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美國의 아시아艦隊는 朝鮮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日本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大院君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斥和碑<sup>19)</sup>를 세워 王政復舊를 더욱 강화한다.

당시의 國內事情도 혼란스러웠다. 大院君은 종래 外戚 일당의 勢道政治 아래서 허수아비가 되어 있던 國王의 權威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景福宮의 重修와 같은 대

18) 姜在彦, 『韓國의 近代思想』, 한길사, 1985, 25-30면

19) “洋夷侵犯非戰則和主戰責國”

역사를 비롯하여, 중앙에 營建都監을 설치하여 국가적 동원 체계를 폈다. 景福宮 重建의 財源을 염출하기 위하여 願納錢의 기부를 요구하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 官爵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나아가서 전세에 덧붙이는 結頭錢, 서울의 都城門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門稅가 부과되었다. 또 財政이 궁해지자 실제 값어치가 20분의 1에 불과한 當百錢을 주조하여 유통시켰고, 그 결과 物價가 上昇하여 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淸나라로부터 錢貨를 수입하여 통용시키는 등 姑息策을 취했으나 經濟的인 混亂은 계속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은 大院君의 稅政을 보고 감히 누구도 바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勉菴은 「...근년 이래로 정사는 옛 법을 변하고 사람은 주관이 없으며 대신이나 육경(六卿)들은 건백(建白)하는 의논이 없고, 대간과 시종(侍從)은 일 좋아한다는 비방을 피하기만 합니다. 조정에서는 속론(俗論)이 자행되어 정의가 소멸되었으며, 아첨하는 사람이 뜻을 얻어서 곧은 선비는 사라졌으며,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기를 중지하지 않아 민생들이 어육(魚肉)이 되었고 윤리가 무너져서 사기가 막혔습니다. 공정하게 일하는 사람을 괴격하다고 하고, 사정으로 일하는 자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치가 없는 사람은 성한 때를 만나고 지조가 있는 사람은 나른하게 죽게 되니, 하늘의 재변이 위에서 나타나고 땅의 변괴가 아래에서 일어나서 우(雨)·양(陽)·한(寒)·서(暑)가 모두 그 정상을 잃었습니다..」<sup>21)</sup>라고 과감히 疏章을 올려 大院君을 정면으로 攻擊하여 大院君의 10년 勢道の 막을 내리게 하였다.

### 3. 大院君의 改革政治

大院君은 哲宗(1850~1863)이 서거한 후, 高宗이 12세로 즉위하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攝政을 하면서 權座에 올라 약 10년간 이른바 大院君 執政時代(1864~1873)를 현출하였다. 그 기간 동안 大院君은 王室外戚의 勢道政治로 弱화된 王權을 강화하고 絶對王政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 前代未聞의 과단한 改革政治를 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과단성 있는 革新政治는 한편으로 反大院君의 기운을 형성하는 결과

20) 洪以燮, 『韓國近代史』, 延世大學校出版部, 1986, 90 面.

21) 『勉菴集』 3券, 疏, 癸酉年(1873, 高宗10) 10月 16日

를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崔益鉉의 彈劾上疏를 계기로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大院君은 집권하자 그 동안 積弊되었던 勢道權門의 대표 격인 安東金氏의 외척 세력을 政權에서 몰아내고 南·北·老·少의 四色黨派를 골고루 등용하고 지방차별 철폐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 班常과 귀천을 불문하고 평민과 衙前輩 가운데서도 유능한 인재를 주저 없이 기용하였다. 중인이나 서열은 관리에 임용하지 않아 인재를 버리는 형편이었지만 천문, 법률, 서원서사 등의 관청에서 능력에 따라<sup>22)</sup>, 특히 역위의 관생들 가운데서도 파견사로 임면하여 중국에 파견시킬 것을 결정했다. 과거를 거치지 않은 역원의 관생들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직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중인 해방의 실천이라 할 수 있었다. 國王의 對官僚支配權을 신장하기에도 힘써 國王 절대 우위의 복고적인 忠君의 儒敎的인 政治理念을 추구하였다. 이리하여 高宗 元年 4월에 領議政 金左根의 辭職을 筆頭로 領敦寧府事 金興根이 稱病을 이유로 사직하였고, 金左根의 아들 金煩冀는 判書에서 廣州留守로 左遷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安東金氏의 원로들에게 아부, 추종하여 우익을 이루던 判書 沈宜冕과 그 아들 沈履澤이 御使의 탄핵을 받아 削奪官職되어 유배당하였고, 左議政에까지 올랐던 李裕元도 水原留守로 좌천되었으며, 이에 대신하여 趙大妃係의 趙斗淳이 領議政에, 남인계의 柳厚祚·韓啓源이 각각 右議政에, 북인계의 任百經·姜滄가 右·左議政, 安東金氏를 대표로 金炳學이 左議政에 전후하여 각각 기용되었다.<sup>23)</sup> 또 平等思想을 기반으로 통치의 객체에 있는 班常·貴賤을 불문하고 기량이 있는 人材들을 適材適所에 임용, 배치하여 자신의 심복으로 삼았다.<sup>24)</sup>

그리고 1865년(高宗 2)에는 三道水軍統制使와 摠戎使의 대우를 향상 시켰다. 그리고 壬辰倭亂 이후 온갖 政府를 총괄해 온 備邊司의 권한을 議政府로 환원 시키는 한편, 三軍司를 폐지하고 건국 초에 있던 三軍府를 다시 設置하여 議政府는 정치, 三軍府는 軍事의 최고기관으로 분리시켰다. 따라서 이는 그동안 집중되어 있던 備邊司의 권력은 분산되고 명령 체계의 단일화가 이루어 졌다. 한편으로는 朝鮮王朝 개창기의 統治體制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왕조의 法典의 근간은 『經國大典』으로서 世祖代동 崔恒, 盧思愼 등에게 명하여 세조 6년(1460)에 戶典을, 翌年에 刑典을, 예종 원년(1469)에 吏, 禮, 兵, 工典을 찬수하였다. 성종 원년과 2년, 5년, 16년에 확정을 보았던 법전으로 朝鮮王

22) 『高宗實錄』 2年 10日, 癸卯條.

23)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乙酉文化社, 1961, 165-166面.

24) 前揭書, 168-171面.

朝 永世不變의 법전이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經國大典』도 개수할 필요성을 느껴 고종 2년(1865)에 당시의 領議政이었던 趙斗淳으로 하여금 『經國典』, 영조 22년(1746)에 간행된 『續大典』, 정조 9년(1785)에 만들어 반포된 법전들로 『大典通編』을 만들어 합하였다. 정조 이후 순조, 헌종, 철종대에 受敎된 사실들과 稟奏된 사항을 집대성하여 『大典會通』을 간행하였다. 『大典會通』에 누락된 사례를 吏, 戶, 禮, 刑, 工曹와各司의 現行규정을 전부 모아 상세한 규정집을 만들어 동왕 4년(1867)에 『六典條例』를 만들었다. 이들 양대 법전은 民本과 治國을 중심으로 한 中國式 法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후의 것이다. 이 법전이후는 우리나라에서도 西洋風의 法律이 되고 있다. 법전이 治者 중심에서 被治者 중심으로 愛民, 基民, 恤民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통치체제가 근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大院君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의에 관한 책으로 『五禮便考』, 『三班禮式』도 저술하여 예의를 숭상하는 國風의 진작에 세운 그의 功勞도 높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大院君의 기본 정책은 王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壬辰倭亂 (1592 ~ 1598) 때 소실된 景福宮의 중건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景福宮은 壬辰倭亂 때에 불탄 이후 여러 차례의 重建 논의가 있었으나 國家財政의 곤궁으로 이를 실현치 못했었다.<sup>26)</sup> 따라서 景福宮의 重建은 專制王權을 신장하고 王室의 威嚴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大院君은 국가 재정과 민력의 困乏을 들어 慎重論 또는 反對論을 펴는 大臣들이 없지 않았으나, 단호히 이를 물리치고 1865년 4월 2일 大王大妃의 傳敎로 營建都監을 설치하고 同月 13일에 그 重建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는 그 經費를 조달하기 위해 政府 官吏와 王室 宗親들에게는 捐補金을 내게 하고, 士庶人들에게는 자진헌납을 형식으로 願納錢을 받았는데, 多額者에게는 벼슬을 주거나 포상한다는 것이었다.<sup>27)</sup> 그리고 부역 동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民怨을 크게 사지 않으면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景福宮 重建 工事は 백성들도 어느 정도 호응하게 되었으며, 大院君도 負役に 임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舞童隊·農樂隊 혹은 남사당패 등을 동원하여 이들을 격려하였다.<sup>28)</sup>

25) 震檀學會, 『韓國史近代後期編』, 乙酉文化社, 1968, 517 - 518面.

26) 『朝鮮王朝實錄』, 純祖28年 9月15日條

27) 『承政院日記』, 高宗 2年 4月 2條-5日條

28) 李瑄根,의 前揭書, 190-191面.

마침내 景福宮은 소실된 지 3백여 년만인 1868년(高宗 5) 7월 다시 重建되었으며, 계속하여 宗廟·宗親府·六曹 이하 각 官署·都城 및 南漢山城의 수축도 차례로 끝내어 5백년 古都가 실로 大院君 때에 이르러 그 면모를 一新하게 되었다. 반면 景福宮의 重建工事は 적지 않은 後遺症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것은 工事が 진행 중이던 1866년 3월 원인 불명의 火災로 木材場에 쌓아 둔 巨木들이 소진되어 막대한 물력의 손실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大院君은 願納錢의 강제 징수, 結頭錢이라는 토지부가세의 過徵, 都城을 출입하는 자에게 通行稅(門稅)를 징수하였는가 하면, 當百錢이라는 惡貨를 남발하여 社會, 經濟的인 混亂을 야기 시킨 것이다.<sup>29)</sup> 이에 物價가 暴騰하여 국민생활을 크게 압박하자 大院君은 1868년 11월에 가서 부득이 當百錢의 사용을 중단하고, 淸錢을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財界는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願納錢이 怨納錢이 되고 結頭錢이 腎頭錢이라고 부르게 될 정도로 공사 후반기에 와서는 民怨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sup>30)</sup>

大院君은 專制王權의 확립이라는 大命題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온갖 弊政의 개혁에도 매우 과감하였다. 書院의 撤廢가 그 한 例이다.

당시 書院은 막대한 農場과 奴婢를 소유하고 免稅·免役의 特權을 누리며 國家財政을 침식하고 良民을 수탈하는 존재로 화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도 國家의 統制를 벗어난 존재로서 社會紀綱을 흐려놓고 있었다. 더욱이 四色黨派 정치가 전개된 이후로는 黨爭의 소굴이 되었을 뿐 아니라 免稅·免役의 特權을 악용하여 避役의 소굴로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書院의 존재를 용인하고서는 執權的 支配 體制를 강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大院君은 1864년(高宗 元年) 7월 27일 大王大妃 傳敎形式을 빌어 議政府로 하여금 書院과 鄉賢祠의 存廢 문제를 협의케 하고 동년 8월 17일에는 각 지방으로 하여금 그 非行과 不法을 낱낱이 적발케 하는 동시에 書院과 鄉賢祠의 私設 및 濫設을 엄금하라는 지시했다.<sup>31)</sup>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듬해 3월 29일에는 大王大妃의 傳敎로 書院 중의 대표적인 萬東廟를 철폐케 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景福宮의 중건 공사가 진행되고 丙寅洋擾까지 치르게 되어 書院의 전면적인 철폐는 지연되어 오다가 1871년 3월 9일, 드디어 大院君은 全國 8道에 令을 내려 書院을 撤廢하라고 하였다. 즉 先儒 1인에 한하여 2개 이상 설립된 書院이나 鄉賢祠는 비록 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폐할

29) 『承政院日記』, 高宗 4年 2月30日條

30) 『梅泉野錄』, 4面.

31) 『承政院日記』, 高宗 8年 3月 9日條

것이며, 先儒라 하더라도 文廟에 제향된 사람에 한해 1개소의 서원 혹은 향현사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大院君의 명령을 위반하는 郡縣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首領을 엄벌키로 되어 있으므로 有名無實 하던 지난날의 명령과는 달리 書院과 향현사가 차례로 헐리게 되었다. 이에 書院에 근거하여 鄉村社會를 지배하고 있던 전국의 儒生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냈으나, 大院君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孔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이를 용서치 않는다는 신념으로 儒生들의 抗拒를 물리치고 전국 670여 개의 祠院 중 47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sup>32)</sup>시키고 말았다. 여기서 書院의 弊端은 일소되고 약화된 王權이 다시 強化되었음을 물론, 이러한 大院君의 과단성 있는 정책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書院의 撤廢는 儒林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고 오히려 反大院君적 기운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그의 政治 生命을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대원군 집권 초부터 민중의 피폐화와 이들의 저항에 나타난 국가위기를 의식하고 최대의 과제로 삼았다. 이것은 三政의 紊亂에 대한 시정이 그 선결과제였다. 대원군은 개혁을 강조하며 「나라의 큰일은 바로 軍政, 結政, 還政 세 가지다. 아울러 당백전 통용을 급선무로 강조하며 사전의 주조를 엄금하고 이것이 나라의 개혁이라」<sup>33)</sup>고 확실히 하고 있다. 우선 그는 자신에게 급여된 免稅田 1,000결을 자진하여 戶曹에 반납하여 國家 財政을 보충하는데 率先垂範하였는가 하면, 1867년 2월부터는 종래 각도 觀察使가 任地에 부임하는 즉시로 그 지방의 特産物을 거두어 왕실이나 權門勢家に 진상·헌납하던 전례를 私獻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여 폐지하도록 명<sup>34)</sup>하였다. 그리고 정액 이상의 免稅田을 환수하여 토지 검병을 강력히 억제하는 동시에 관리나 土豪들의 貪虐을 엄히 다스렸다. 그리고 軍布와 還穀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戶布法과 社會法을 시행하였다. 전자는 종래 양민에 한하여 人頭稅(兵役稅) 형식으로 부과되던 軍布를 戶布(家戶稅)로 바꾸어, 그 징수 대상을 兩班에게까지 확대시킨 稅制였고, 후자는 사회의 還穀을 대여 받아 농민들 스스로 하여금 환곡의 賑貸를 운영케 한 구휼 제도였다. 그런데 戶布制의 제정은 이에 앞서 시행되었던 洞布制가 결과적으로 窮班·賤班에게만 그 부담을 이행시켜 갔던 데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래 大院君은 三政의 紊亂 속에서 良役 인구의 감소에 따른 軍布 수입의 감축과

32) 『承政院日記』, 高宗 8年 3月 20日條

33) 『承政院日記』, 高宗5年 2月 30日條.

34) 『高宗實錄』, 高宗 4年 2月 13日條

양민 부담의 가중 등을 들어, 이를 지양하고자 高宗 初에 실시했던 것이 이른바 洞布制이다. 즉 각 군현의 軍額元數에 해당하는 軍布를 官內 家戶의 대소에 따라 班·常戶를 가리지 않고 분배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분의 混淆를 초래한다는 兩班層의 반발로 인하여 균일하게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속에서 軍布·洞布·結布 등의 다양한 수취명목이 군현에 따라 각이하게 존재하는 혼란과 아울러 동포의 부담이 殘班·殘民에게만 가중되어 가는 양상을 빚어갔다. 이리하여 1871년 4월에는 兩班 階級이 납세하는 것에 대하여 위신 문제라는 반대론도 감안하여 양반계급의 납세는 하인인 奴僕의 이름으로 納布토록 하는 戶布法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이는 형식상 또는 명의상으로 양반은 군포 납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소득의 빈부 차이도 가리지 않고 매호당 2냥씩 균일하게 부과한 것은 오늘날의 상식으로 반다면 일반 평민층의 불평과 반대가 대단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戶布制 실시에 대한 반대론은 평민층이 아닌 양반 特權階級에서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拒納 및 避納은 여전하여, 戶布法의 실시는 결국 殘班·賤民만의 소정 세액의 4~5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니는 결과를 빚어 놓은데 그쳐지고 말았다. 그리고 양반층으로 하여금 反大院君의 기운을 더욱 조장케 하는 한편, 殘班層의 反社會的 抗拒 意識을 더욱 강렬하게 하였던 또 하나의 계기를 이루어 놓았다. 또한 무역과 상거래 등에도 관심을 가져 都買商人의 물가 조정을 단속하고, 청국상품과 일본상품에 대해 엄밀한 과세를 징수를 명하였다. 또한 광산업을 적극 장려하여 국가재정을 확대하였다.

朝鮮은 丙子胡亂 이래 國防, 軍備政策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大院君은 국방문제를 중시하며 軍制改革에 착수하였다. 水軍을 강화하고 군제를 정비, 개편을 단행했다.

議政府와 三軍府의 본래 기능을 부활시켜 議政府는 政治의, 三軍府는 軍士의 최고기관으로 命令體系의 單一化를 이룩함으로써 文官 위주였던 행정체계를 혁신하였다. 경기, 강화도 연안에 海上警備 태세를 강화<sup>35)</sup>하는 동시에 남북 변경에도 유의하여 4군을 개척하여 屯兵制度를 실시하고 日本의 침입도 경계하였다. 근대화된 서구 병기와 비교해 朝鮮 兵器의 弱勢를 認識하고 만주와 일본으로부터 軍器 軍物을 구입하고 김정희 등 실학파의 건의로 海國圖志에 따라 신무기 개발에도 노력했다.<sup>36)</sup> 국가재정의 확충 위에서, 국방대책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서구 침입에 적극적인 저

35) 『承政院日記』 高宗 7年 11月 17日.

36)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第3卷, 書.

항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大院君은 이러한 쇄정개혁의 시책과 더불어 생활의 간편화와 節儉을 기하는 풍습의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 4. 勉菴의 流配 路程<sup>37)</sup>

1873년(고종 3년) 10월 11일 '정사가 옛 법을 변경했고 인륜이 무너졌다'[ 政變舊章彝倫數喪]는 내용의 5條疏를 올렸다.

11월 3일 高宗은 戶曹 參判 崔益鉉의 上疏한 말 가운데 임금을 능멸하는 말이 많다하여 竄配의 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4일 이후 崔益鉉을 推鞠하라는 劄子가 계속되었으나 왕은 允許하지 않고 崔益鉉의 찬배를 속히 거행하라고 命하였다.

6일 大臣들이 계속 劄子를 올려 推鞠을 요청하자 王도 부득이 이를 允許하였다. 崔益鉉은 樓院店에서 拿致되어 義禁府로 押送되었다.

8일 義禁府 南間에 수감되었다가 이날 밤 삼경에 국청을 배풀었다.(勉菴이 남간에 들어오자 온 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하늘을 우리러 원통하다고 부르짖고, 선생이 체포되어 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통곡하였다.)

9일 王은 中宮의 산기가 많이 남지 않음을 이유로 推鞠을 철회하고 귀양 보낼 곳을 草記하여 올리게 하였다. 이에 朴珪壽가 獨斷하여 草記를 올렸다.

10일 濟州牧에 圍籬安置하라는 명이 내렸다(有濟州牧圍籬安置之命).

12일 義禁府 南間에서 西間으로 옮겼다가 밤 삼경에 金吾門(義禁府 別稱)을 나왔다.(勉菴이 獄에서 나오니 도성의 백성들이 떨 듯이 기뻐하였다. 남너노소 할 것이 모두 선생의 얼굴을 보려고 지나가는 곳이나 쉬는 곳에는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지고, 또 酒饌을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벼슬아치와 유생들은 혹 누가 미칠까 두려워하며 모두 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앉아서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오직 洪암 박공이 승례문 밖에 나와 전송하면서 疏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회포를 펴며 정답게 담소하고 겸하여 노자도 주었으며, 이외에 尹致賢·尹周伯·徐汝賚·柳聖方·李君一·安琦良·李在秀·李承會 등도 만났으며, 梁憲洙는 추후로 의복과 노자

37) 여기서는 『勉菴集』附錄2券, 韓國古典翻譯院, 高宗 10年(癸酉, 1873)-12年(乙亥, 1875)의 年譜를 中心으로 엮었다.



를 몰래 부쳐왔다.)

13일 義禁府 郎廳 李元儀가 압송해 가는데 밤새 한강을 건넜다.(이에 앞서 人定때 쯤 金吾의 일행이 와서 길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이때 하늘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추위가 매우 혹독하였으나 嚴程, 즉 기한이 정해진 旅程을 지체 할 수 없다하여 곧 가마 한 채를 세내어 길에 오르니, 뒤따르는 사람은 族人과 僉從 각기 한 사람 뿐이었으며 쓸쓸한 행장에는 朱子書 한 질뿐이었다.) 마침내 銅雀津을 건너고 南泰嶺을 건너서 果川에 이르니 닭이 울었다. 행장이 다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하루를 묵었다. 맡아들 永祚는 여러 날 金吾門 밖에서 거적을 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울며 작별을 고하니, 崔益鉉은 조금도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말은 하지 않고 다만 祖父를 잘 봉양하고 讀書를 부지런히 하라는 것으로 거듭 경계하였다. 다시 출발하여 水原에 이르니 判官 鄭光始가 점심을 내었고, 天安에 이르니 郡守 李恒信이 朝飯을 냈으며, 柳勞人 官五가 돈 세냥과 藥 10첩을 주었고, 泰仁에 이르니 縣監 張福遠이 두세 번 衙前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長城에 이르니 府使 鄭善始가 이틀 동안 朝飯과 夕餐을 냈으며, 羅州에 이르니 牧使 宋寅玉이 朝飯과 夕餐을 내고, 營將 李德純은 同鄉의 벗인데, 路費를 청하자 돈 50궤미를 노자로 주었다. 靈巖 德津店에 이르니 同宗 景文이 와서 기다리다가 역시 돈 세냥을 보태 주었고, 郡에 이르니 郡守 具然植이 朝飯과 夕餐을 내었다. 여기서부터 康津 및 梨津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官에서 공급하였다.

28일 梨津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렸다. 禁府都事가 바람이 자기를 기다려 떠나겠다는 뜻으로 狀啓를 발송하므로, 崔益鉉도 그 편에 집으로 편지를 붙였는데, 較穀 등은 모두 여기서 하직을 고하였다.

여기서 이들을 묵은 후 12월 3일에 비로소 조그마한 배 한척을 얻어 타고 노를 저어 약 70리 가량을 가니 所安島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피로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 뱃사공이 바람이 불어 출발할 만하다 하므로 첫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새벽 丑時 경) 배에 올랐다. 濟州와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뱃멀미가 크게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朝天浦에 이르니 시간이 巳時 쯤 되었는데, 눈을 들어 햇별을 쏘이니 멀미가 조금 가라앉았다. 앞을 바라보니 漢拏山의 한 줄기가 남쪽을 가로막아 있고 사면이 큰 바다인데, 아득하여 끝이 없으니 참으로 기이한 곳이었다.

배에서 내려 朝天鎭舍에 서 밤을 지내고 아침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섬(濟州

牧)안으로 들어가서 尹圭煥(奇福)의 집에 館所를 정하였는데, 金吾와 牧使(李宓熙)가 감독하여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자물쇠를 채우니 때는 선달 5일 이었다. 禁府都事 및 牧使 李宓熙가 와서 圍籬를 감시하고 공궤 등물은 本官(濟州牧)에서 대어 주었다.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고, 또 校宮에 간직된 <尤庵集> 1권을 빌려 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 島内の 文士로 安達三·金義正·姜基碩·金龍徵·金堧·金致裕·金養洙 같은 이들이 往來하며 從遊하였고, 湖西 사람 孟文浩·崔榮煥, 湖南 사람 崔勝鉉·朴海量·金孝煥·金衛培·安璣煥·李弼世가 모두 바다를 건너와서 만났다.

1874년(高宗 11년) 1월 胡錢을 혁파하라는 命이 있었다.

1874년(高宗 11년) 東宮이 탄생하고, 곧 萬東廟을 다시 설치하라는 命이 있었다. 이보다 앞서 3賊에 대하여 추가로 죄를 주었고 이 때 와서 또 이렇게 명을 내렸으니, 이것은 의 말로 인하여 차례로 시행된 것이다.

1874년(高宗 11년) 3월 尤庵謫廬碑를 奉審하고 天一亭·運籌堂을 거쳐 橘林書院 옛 터를 가보았다.<sup>38)</sup>

1875년(高宗 12년) 3월 16일 解配關文이 들어오니 判官 李時鉉이 公服을 갖추어 입고 圍籬를 철거하였다.<sup>39)</sup> 同年 3월 25일 橘林書院 옛 터에 가서 祭文을 지어 五賢에게 祭祀하였다.<sup>40)</sup>

同年 3월 27일 漢拏山에 올라 白鹿潭과 千佛巖 등의 명승을 두루 구경하였다.<sup>41)</sup>

同年 4월 12일 어둑어둑할 때 別刀鎭에서 배를 띄워 밤낮 이틀을 지나 이진에 도착하였다. 이때 문인 金義正과 館人 尹奇福이 拜行하였다.<sup>42)</sup>

38) 『勉菴集』 年譜, “又借校宮所儲尤菴集一帙潛心玩索”

39) 『勉菴集』 年譜, “解配關文入來判官李時鉉具公服撤圍籬”

40) 『勉菴集』 年譜, “就橘林院墟操文祭五先生 卽冲菴金先生, 圭菴宋先生, 淸陰金先生, 桐溪鄭先生, 尤菴宋先生也”

41) 『勉菴集』 記, 遊漢拏山記가 전한다

42) 『勉菴集』 年譜, “門人金義正舊館人尹奇福陪行”

### Ⅲ. 勉菴의 教育思想과 教育方法論

#### 1. 朝鮮後期 教育思想의 경향

朝鮮後期の 性理學의 學統과 이에 기초한 教育思想의 맥락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9세기 전반에 와서 조선조의 정통적 성리학 사상이 華西 李恒老, 蘆沙 奇正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에 의해서 재정비됨으로써 그 學統이 이어지고 19세기 중엽 西勢東漸의 충격이 시작되자 朝鮮朝 性理學의 기초 위에서 斥邪論議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즉 19세기의 척사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철학적 기초는 강력한 主理論의 경향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朝鮮朝 政治體制의 對外 關係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조선조의 體制保衛라는 실천목표와 연결되어 있던 척사논의는 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조선조의 체제와 문화를 “理”로 보고 외세를 “氣”로 보는 自尊的 意識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와 같이 조선조의 정통 性理學 思想은 정치체제 내 권력 구조와 전통적 결합관계로부터 분화되어 排外勤 民族주의 경향을 강렬하게 보여주면서 士林 중심의 斥邪派와 官人 중심의 執權派로 분리된다.

政治體系를 倫理的 價値體制와 同一視하는 性理學的 思想의 시각에서 보면 이질적 윤리체계로서의 외국의 政治文化와 交涉을 갖거나 그것에 門戶를 開放한다는 것은 곧 異端에 의한 自國 정체의 침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內修外攘이 제시되고 여기에서 外攘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內修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性理學思想에 기초한 正道政治의 확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斥邪思想의 이론적 기수였던 華西나 蘆沙의 內修外攘論이 대체로 보아 첫째로 군주의 正心克己, 둘째로 洋貨, 洋物의 排斥禁斷, 셋째로 외세의 도전에 대한 誅捕征伐의 순으로 개진되고 있음에서 그러한 요지를 보게 된다. 그런데 蘆沙의 唯理一元論的 斥邪論議는 그 뒤 思想史的 系譜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華西의 主理二元論的 척사논의는 그의 門人들에 의해 이어지며 특히 重菴 金平默에 의해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한 발전을 보게 된다.

19세기 후반 斥邪論議의 큰 흐름은 重菴에 의한 이론적 발전을 거쳐 省齋 柳重教 등의 斥和論으로, 그리고 毅菴 柳麟錫 등의 救國義兵運動으로 승계되며 한편 重菴의 동문수학인 勉菴 崔益鉉 등에 의해 斥邪運動으로 확산되었다.<sup>43)</sup> 결국 이들 학파는 19세기 말엽에 歷史的 狀況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과정에서 儒學의 本質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歷史的 變遷에 抵抗하는 保守的 樣相을 보이기도 하고 外勢의 壓力에 저항하는 斥邪衛正의 민족 주체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화서학과와 노사학과는 義學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舉義掃淸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義兵運動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學風의 영향으로 濟州島에도 斥邪衛正類의 사상적 전개가 만개된다.<sup>44)</sup> 이렇듯 時代的으로 實踐的 意識으로 개선시키고자 했던 勉菴은 思想的 轉換의 와중에서 濟州 流配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不惑의 문턱을 들어서 思想的 活力이 가장 만개하였을 41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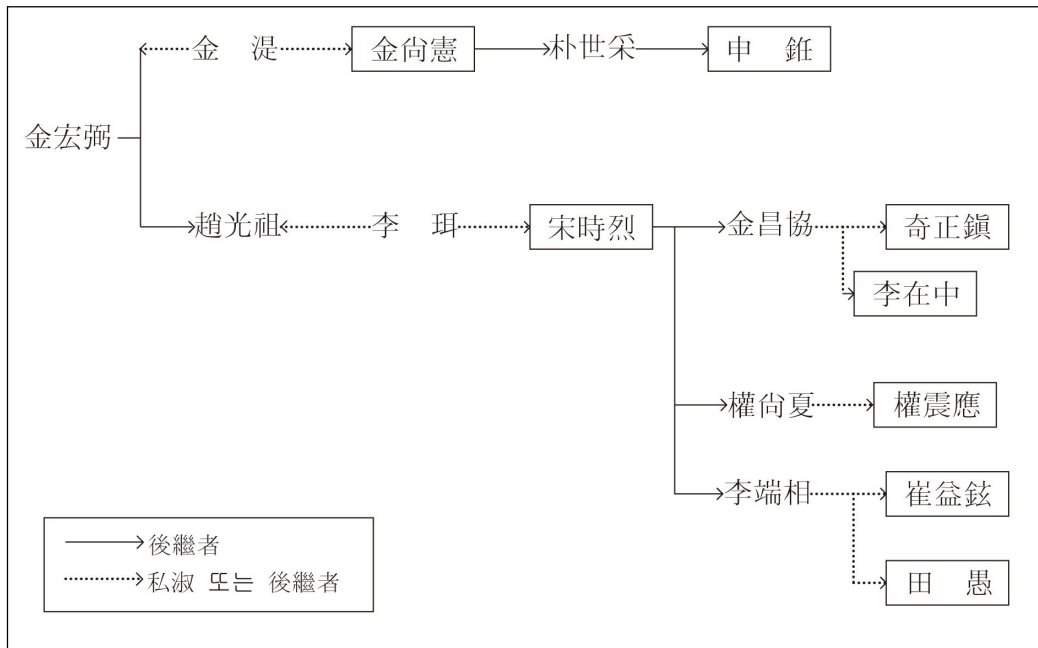
勉菴은 適所 尹奎煥의 집에서 潛心玩索하면서 教學活動에 힘쓴다. 여기서 말하는 教學活動이란 스승으로부터 道를 전해 받아서 弟子에게 道를 전해주는 性理學의 繼往開來的 傳統의 承繼 作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教育의 형식으로서 師生 혹은 師問하여 배움을 청하는 형식은 물론이고 다만 書翰으로 問目을 하거나 혹은 書贊을 올려서 師生 관계를 맺는 등의 여러 방법을 總稱<sup>45)</sup>하는 것이다. 특히 故人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속으로 그 德을 사모하고 直接 가르침이 없어도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하여 자기 학문을 닦는 私淑弟子의 關係는 教學活動의 주요 맥락이다. 勉菴이 승계하였던 畿湖學風과 濟州島와의 인연은 일찍이 按撫使 金尙憲, 流配人 宋時烈, 申鉉, 李在中, 權震應 등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文風을 진작 시키는 데는 당대를 대표하는 學者가 거주하거나 수령으로 재임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朝鮮朝의 常例였듯이 이들은 모두 濟州의 教學發展에 남다른 몫을 하였다. 이 밖에 奇正鎭이나 田愚의 경우는 濟州의 文士들이 出陸하여 그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畿湖學風을 전수받기도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개략적으로 이들 師弟淵源의 系譜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sup>46)</sup>

43) 李澤徵, 『斥邪理論의 展開와 그 意義』,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第4輯, 朝鮮政治思想研究, 163-165面.

44) 梁鎭健, 『朝鮮後期 濟州에 기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教育思想研究 제 20집, 2006. 3-4面

45) 梁鎭健,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研究』, 耽羅文化, 1987, 272面.

46) 前揭書, 272-273面.



[그림 V-1] 勉菴의 思想이 濟州 義兵活動에 미친 影響 系譜

金尙憲이 제주에 來島할 당시(1601년)는畿湖의 學風과 尹根壽의 門에서 길러진 名分을 고수하는데 學的 態度가 가장 무르익었을 32세 때였는데 그 당시 그는 스스로의 讀書가 극히 적다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학문, 문장의 연원이 所從來가 있음을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제주에서 鄭應禎에게 이어진다.

宋時烈은 金尙憲을 大義의 宗主라 생각하고 書贊(서신으로 폐백에 대신함)를 올려서 師弟關係를 맺은 사람으로 또한 申鉉은 朴世采의 문인이자 金尙憲 學統의 再傳(제2대 제자)으로 각기 83(1689), 84(1722)세의 高齡에 濟州流配로 내도하였는데 당대의 거유로서 그들의 立地 자체가 유림의 큰 자극이었기에 그들이 濟州島에 끼친 敎學的 影響력은 파장은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宋時烈은 그의 스승인 金長生으로부터 義理를 내용으로 하는 禮學을 습득하고 金尙憲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義理學派를 여는 지분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의리학풍을 면암의 유배로 직접적으로 제주문사들에게 승계된다.

조선조 말기(18C)에 접어들면서 기호학풍은 湖洛學派로 분열양상을 보이는데 湖學은 權尙夏에서 시작되어 權震應의 스승인 韓元震이 계승하였고 洛學은 金昌協에 원유되어 李存中의 스승인 李緯가 지켰다. 流配人으로서 권진웅(1771년)과 이존중(1751년)은 이러한 자신들의 학풍을 제주도 지역에 전파하는데 각기 나름의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조선조 후기(19C)의畿湖學風를 주도하는 세력은 李恒老의 華西學派, 奇正鎭의 蘆沙學派, 田愚의 艮齋學派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華西學派는 勉菴의 제주 유배를 통해, 畿湖學派는 濟州文人인 安達三, 高性謙, 李啓徵, 梁觀, 玄尙希등의 방문, 艮齋學派는 濟州文士인 高景洙, 金泰交, 金玉林, 金景鐘, 高炳五 등의 방문을 통해 그 학풍의 전파가 이루어진다.<sup>47)</sup>

## 2. 勉菴의 教育思想과 教學方法論

조선조 말기의 성리학계는 主理·主氣의 편향이 심화되지만 主理派는 수세의 양면으로 主氣派를 능가하고 사상계를 장식한다. 勉菴의 사상적 기초 역시 완고한 주리와 계열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理는 無爲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動하고 靜하다고 한 것은 有爲요 無爲가 아니다. 그 理는 진실로 무위하지만 능히 유위의 주가 되는 것이니 이미 주가 된다면 동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은 太極이 아니고 무엇인가」하는 명쾌한 理論的 主理說이 그것이다. 이 같은 勉菴의 사상적 입장은 당시 朝鮮朝 政治體制의 대·외관계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조선조의 체제보위라는 실천목표와 연결되어 있던 勉菴의 사상적 맥락은 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조선조의 체제와 문화를 理로 보고 외세를 氣로 보는 自尊的 意識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勉菴의 形而上學인 主理說은 조선조의 統治理念으로서 정통적 官學 이데올로기 기능을 담당하여 왔는데 이 주리설은 정통적 官學이 행하여야 할 역할, 즉 所當然으로서 忠을 國家紀綱의 공고화라는 차원에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소당연으로서의 ‘忠’이 곧 ‘氣’ 아닌 ‘理’에서 찾아지고 또는 ‘理’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勉菴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관이 ‘斥邪衛正’이라는 保守的 國權守護의 自主意識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勉菴은 教育의 目的을 本心을 保存하고 理를 밝히는<存心明理>에 두고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敬’을 말하였다. ‘敬’이란 곧 마음을 집중하여 동요하지 않는 태도로서 이른바 內面的인 자기 魂의 正화수련을 의미한다. 勉菴은 이렇듯 내면적 자아확인을 教育의 根本으로 보기 때문에 教學方法論으로서 學習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그러

47) 梁鎭健,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研究』, 耽羅文化, 1987, 274面.

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 보다는 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 한 몸에 만 가지 일이 모였으니 만약 그 요령을 모두 잡고 宗旨을 정하지 않고서 다만 그 博學만을 힘쓴다면 혹 記誦하는 습관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詞調의 화려한 것에 빠질 뿐이요, 마음을 세우고 行實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참으로 얻음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勉菴 教學方法論의 核概念인 '敬'의 哲學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勉菴의 '敬'은 教學의 方法論으로만이 아니라 人格實現의 指導理念이기도 하였다. 勉菴에게 있어 개인의 人格實現이란 義理의 實現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의리 실현은 敬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의 論旨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문을 하는 뜻은 義理를 밝혀 그 몸을 닦은 뒤에 미루어 사람에게까지 미치려 함이요, 한갓 博覽強記에 힘써 문장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祿利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華西로부터 勉菴에게 승계된 朱子의 學思方法論의 분위기를 목격하게 된다.

勉菴은 14세때 스승 華西와의 첫 만남에서 '洛敬閩直' 즉 程子の 居敬窮理와 朱子의 '敬以直內'라는 敬을 주제로 한 學思方法論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承繼의 努力이 발현된 것이 곧 면암의 教學方法論인 것이며 敬의 生活化하는 實踐力으로 나타난 것이 면암의 斥邪運動인 것이다.<sup>48)</sup>

48) 梁鎮健,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研究』, 耽羅文化, 1987, 274-276面.

## IV. 勉菴의 濟州敎學活動과 結果

### 1. 朝鮮後期 濟州儒林의 敎育實狀

朝鮮朝의 敎學秩序는 지역적인 이유와 더불어 自派勢力의 확립을 모색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크게 嶺南學派와 畿湖學派로 대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流波와 系譜的 正統性을 이룬다는 견지에서 特定 學派나 學統에 대한 士林의 執着은 대단한 것이었다. 즉 각기 다른 계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師弟關係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連帶意識은 매우 강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濟州島의 경우는 朝鮮朝 敎學秩序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異質的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嶺南學派나 畿湖學派내의 사람들의 流配人의 신분으로 來島함에 따라 濟州儒林들의 특정 유파의 계보적 정통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학파의 분위기와도 쉽게 同化함으로 하여 學問的 正統性에 대한 일종의 混亂相을 노정시키는 것이 그 例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濟州島가 地理的으로나 政治的으로 볼 때 遠步의 島配地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敎育的 側面에서 특정 학파의 영향력을 고집할 만한 學問的 自生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濟州島가 學問的 自生力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떠한 정책적 의도 때문에 學問的 傳統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으로 濟州島에 대한 封建的 收奪이나 出陸抑制政策 같은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生存을 위한 耕地面積의 절대적인 부족과 耕地의 척박, 그리고 原始 農法의 답습은 地主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의 대부분의 濟州島 사람은 대개 경제적 조건을 가진 自作 겸 小作農으로서 農民層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劣惡한 조건 아래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濟州島 사람은 한편으로는 漁業이나 手工業 등에 의존하고 한편으로는 牧場地 및 火田 등의 國有地의 경작과 관방전 및 아문둔전 등의 공토의 경작 등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세 및 화전세 등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더구나 이



것은 점점 인상되어 濟州島民을 다시 窮乏케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國家地主制를 통한 부패한 官員들의 封建的 收奪은 19세기 후반에 가중되었다.

한편 濟州島에는 경지의 대부분을 밭이 차지하고 있었고 밭은 기후 등의 자연환경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굴 등의 特用作物의 재배와 牧畜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特用作物 및 말(馬)등은 그 대부분이 現物 형태로 공납되었으며 이 공납에는 中央으로부터 파견된 官吏에 의한 恣意的 收奪이 자주 자행되어 濟州島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濟州島 사람은 생계의 보조수단으로서 미역, 전복 등의 해산물과 양태 등의 手工業生産物을 통하여 忠淸, 全羅道 지방의 內陸商人에게서 식량과 포목 등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주도 사람은 항상 弱者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여 經濟的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現實的 狀況에서 教育의 傳統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약 200여년 지속되었던 出陸抑制政策은 제주도의 對外的인 教育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아 근대에 이르도록 제주도로 하여금 폐쇄적인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惡影響을 끼쳤는데 결과적으로 濟州島의 教育을 破폐화시킨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였다. 결국 出陸抑制政策의 여파로 濟州島 教育은 流配人들에게 의존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濟州島 사람들은 아직은 教育의 객체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유파의 계보적 정통성을 고집할 입장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봉건적 수탈과 출륙억제 같은 여러 가지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教育적 역량은 鄕校나 書院 등의 공식적인 경로와 유배인과의 師友講習 筭銀 非公式적인 경로를 통해 축적되었고 이는 결국 후기에 들어 출륙억제와 같은 제도적 禁壓政策의 극복을 위한 동인이 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축적된 教育적 역량을 기반으로 순조(1820년대) 때에 이르러 出陸抑制政策은 해제되었으며 이 후 濟州島의 教育도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다. 즉 많은 濟州文士들이 출륙을 하여 여러 巨儒들 밑에서 直接授業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또한 제주도로 다시 들어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하여 教育의 主體力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유파적 연대의식이 조성되는 등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教育적 활기를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유파의식은 李恒老의 화서학과, 奇正鎭의 노사학과로 대별되는 척사위정사상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전개됨으로써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教育문화를 형성하게 된다.<sup>49)</sup>

이전에는 巨儒의 師友錄이나 弟子錄에 제주인들이 기록되는 例가 없었으나 출륙 억제정책 해제 이후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거유의 師友錄에 등재되는 것이 그 流波的 連帶意識을 대변하는 실례이다.

朝鮮後期の 畿湖學風을 주도하는 勢力은 李恒老의 華西學派, 奇正鎭의 蘆沙學派 그리고 田愚의 良齊學派로 크게 대별된다. 華西學派는 京畿, 江原, 忠南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 學派의 學風은 화서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崔益鉉이 流配로 濟州에 소개된다. 노사학파는 비교적 濟州人들의 출육에 용이했던 全南을 중심으로 慶南西部 지역까지 뻗쳐 있었으며 濟州 安達三, 高性謙, 李啓徵, 梁觀, 玄尙希 등이 長城에서 기정진에게 직접수업 함으로서 그 학풍을 접하게 된다. 특히 安達三, 高性謙, 李啓徵은 기정진의 師友錄에도 등재<sup>50)</sup>되어 있어 기정진의 初傳임을 입증하고 있다. 화서나 노사학파보다는 후기계열이면서 화서나 노사학파와 논쟁적 태도를 보여준 良齊學派는 全北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었는데 濟州人 高景洙, 金泰交, 金玉林, 金景鐘, 高炳五 등이 가르침을 받는다. 이들은 역시 田愚의 師友錄에 등재되고 있다.<sup>51)</sup>

그런데 이들 三大學派는 19세기 말엽에 歷史的 狀況의 不安定과 급변하는 과정에서 儒學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역사적 변천에 저항하는 保守的 樣相을 보이기도 하고 외세의 압력에 抵抗하는 斥邪衛正의 民族主體的 意識을 드러내기도 했다. 화서학파나 노사학파는 義學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義學掃淸하는 적극적인 입장이고 간제학파는 黃海의 섬으로 망명하여 전통을 지키겠다는 去之守舊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濟州島에는 특히 華西나 蘆沙學風의 영향으로 斥邪衛正類의 思想的 전개가 이루어진다.<sup>52)</sup>

## 2. 勉菴의 濟州敎學活動

일반적으로 만드는 敎育의 대상이 무차별한데 비해 流配人의 敎學活動은 그 대상

49) 梁鎭健, 『朝鮮後期 濟州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敎育思想研究』, 第20集, 2006, , 4-6面.

50)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卷下.

51) 上揭書, 卷下.

52) 梁鎭健, 『朝鮮朝 濟州 敎育思想史 研究』, 博士學位論文, 1991. 128 - 129面.

이 限定的이며 또한 대부분의 教育活動이 繼續的임에 비해 流配人의 教學活動은 斷續的이고도 突發的인 것이다. 이렇듯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偶然的이고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豫想할 수도, 計劃할 수도 方法化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流配人의 교학활동은 實踐의 優位性을 나타낸다. 결국 유배인의 교학활동이란 유배인과 제주인의 돌발적 만남이다. 만남이란 인간과 인간의 相互作用이고 生動的인 人格的 關係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環境에 대한 包括的이고 實踐的인 廣範圍한 모든 關係를 뜻한다. 53)

濟州島에서 勉菴의 初傳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安達三, 金義正, 姜基碩, 金龍徵, 金燾, 金致塔, 金養洙 그리고 李基璫, 姜哲鎬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勉菴의 지적대로 '往來從遊'했던 문사들이며 실제 勉菴 자신이 文人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면암의 師友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는 金義正<sup>54)</sup>이 유일하다.

이를테면 朴世采의 「東儒師友錄」의 서술방법이 文人과 從遊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보자면 이러한 논리대로 제주지역의 勉菴의 실제적 初傳은 김희정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조선조의 師友關係란 직접 수업(執贄)하지 않고도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座主와 門生, 성균교관과 유생, 서신왕래(問目) 및 한 두번 방문하여 學問的 質疑와 討論 등의 관계에서도 師友關係가 성립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從遊子를 넓게 師弟의 맥락에서 검토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 濟州牧使였던 李約東과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는 「粘畢齋先生年譜」에서는 金宗直의 종유자로 기록되고 있지만 후세의 기록, 이를테면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에서는 文人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의 연원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이 같은 것으로서 문인과 종유자의 구별은 박세채의 논리처럼 그렇게 엄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sup>55)</sup>

그러나 勉菴의 從遊者 가운데 安達三은 奇正鎭의 師友錄에도 기정진의 문인으로 등재되어<sup>56)</sup> 있을 뿐만 아니라 勉菴도 安達三은 奇正鎭의 文人으로 지칭하고 있어<sup>57)</sup> 따라서 安達三 같은 경우는 그의 연원이 勉菴이 아니라 奇正鎭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강기석은 유배인 金正喜와 師友關係를 맺었는데 金正喜의 實學學風안에서 사우關係를 맺은 강기석 같은 이가 正統 性理學의 學風을 고집하는 勉菴과도

53) 前掲書, 48面.

54) 尹榮善, 『朝鮮儒賢 淵源圖』 卷下, 七 參照

55) 高昌錫·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9, 277面.

56) 尹榮善, 『朝鮮儒賢 淵源圖』 卷下, 四三 參照

57) 『勉菴集』 年譜, 乙亥 四月 參照

쉽게 從遊關係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流配地라는 濟州島 특유의 환경 탓이지 조선조의 一般的 現象을 아니었던 것이다. 애초 學風이 다르다든가 일단 師弟關係를 맺고 있다든가 하면 다른 학풍 혹은 다른 스승과는 관계 맺기가 용이치 않게 되는데 濟州島의 경우는 流配地라는 환경 탓에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학풍이나 스승과도 쉽게 관계를 맺는 제주도 특유의 教育思想的 特徵을 이룬다.

이렇듯 사제관계의 연원이 중요한 이유는 사제관계는 朝鮮朝 性理學的 教育精神의 特徵이며 歸結點이기 때문이다. 결국 朝鮮朝의 教育을 논함에 있어 師弟關係는 논의의 준거점이 되는 셈인데 이것은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성리학의 사제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만남(treffen)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조 識者들의 삶의 기본전제를 의미하는 믿음성(fidelele creatice)을 뜻한다. 특히 戊午土禍가 일어남으로서 스승의 죄 때문에 무고한 弟子도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이것을 계기로 師弟關係는 學問의 傳受에서 生死의 관계로까지 深化되었듯이 선비가 선비인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師弟의 人倫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師弟 關係란 운명적인 만남(begegnen)이지 일시적인 이해나 편법에 의하여 바뀌는 것은 아니다. 君師父一體 시대에 스승을 저버린다(背師)는 것은 綱常의 罪에 버금가는 도덕적 과탄행위였던 것이다.<sup>58)</sup>

濟州 流配人 가운데 鄭蘊 같은 이는 처음에 鄭仁弘을 스승으로 하여 大北이 되었으나 뒤에 鄭仁弘이 불리함을 보고 스스로 제자의 적을 없애고 中北이 되었다가 다시 南人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鄭仁弘이 뒷날 죽인을 당하자 定溫은 그의 시체를 수습을 청해서 사재간의 도리가 끝까지 변치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師弟關係란 어떠한 이유에서도 준수해야 할 원칙임을 웅변한다. 그런데 華西는 「朱子を 종주로 삼지 않으면 孔子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宋子(宋時烈)를 본받지 않으면 주자의 정통에 접할 수 없다」<sup>59)</sup>고 언명하여 그 자신의 학통에 대해 孔子 → 朱子 → 尤庵 → 華西로 이어지는 맥락을 제시하였으며 그 뒤 화서학과에서는 언제나 이 학맥을 도학의 정통으로 확인하였던 까닭에 결과적으로 勉菴의 流配生活 동안에도 朱子和 尤庵의 奉審은 당연한 선택이었다.<sup>60)</sup>

勉菴은 濟州 適所에서 校宮에 간직된 「尤庵集」을 빌어 潛心玩索하였으며<sup>61)</sup> 尤

58) 高昌錫·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9, 278面.

59) 『華西集』年譜, “學者不宗主朱子無以入得孔子門庭不憲章宋子無以接得孔子統緒”

60) 梁鎭健,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韓國教育史學 第24卷 第1号, 216面.

61) 『勉菴集』年譜, 己卯. “又借校宮所儲尤菴集一帙潛心玩索”

庵이 귀양살이하던 집에 세운 「尤翁謫廬碑」를 奉審하고 天一亭·運籌堂을 거쳐 橘林書院 옛 터를 가보는<sup>62)</sup> 한편 「掛弓軒次板上韻」이라는 시를 통해 존폐위기의

의 社稷을 지키고자 하는 憂時戀君의 충정과 울분의 志士적 면모를 우암을 빌어 토로한다.<sup>63)</sup> 면암이 濟州島에 처음 流配되어 쓴 「掛弓軒次板上韻」을 살펴보면,

漢挈山一點	우뚝 솟은 한 점의 한라산
積水渺茫中	아득한 바다에 떠 있구나
愧乏元城操	원성의 지조 없어 부끄러울 뿐
肯嫌屈子窮	굴자의 곤궁함이 어찌 흠이리
光迎蓬海月	밝은 빛은 봉해의 달을 맞이하고
香襲橘林風	맑은 향기는 귤림에서 풍겨오네
萬里君親遠	임금과 아버지 먼 곳에 계시니
緣何罄素衷	한 조각 이 마음 어디다 바치오리
遊遠男兒事	먼 곳에 노니는 건 남자의 일이라
八荒亦室中	온 누리도 한 방 안과 같도오
北瞻天極迥	북쪽을 보니 천극은 아득하고
南渡地形窮	남쪽을 건너니 땅도 막다랠네
百念都成水	모든 시름은 물같이 흘러가고
一帆但信風	조각 돛을 바람에 맡겼어라
巴翁當日事	파옹 <sup>64)</sup> 의 그때 일을 생각하면
徒激後人衷 <sup>65)</sup>	후인의 가슴만 격분하게 하네

解配될 무렵에는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祭文」은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은, 우암 송시열 등 소위 濟州 五賢을 흠향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제문에서 면암은 우암에 대해 「송문정공은 일세의 뛰어난 영걸로 음양을 가르는데 한 칼에 두 쪽을 냈습니다. 명을 잊지 못하고 주자를 본받아 밝히니 전체 대용이 우주에 가득했습니다. 윤희가 화를 빚어 예를 멸시하고 경서를 헐뜯으며 주자를 무시하고 성인도 별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파를 만들고 봉당을

62) 『勉菴集』年譜, 癸丑. “三月奉審尤翁謫廬碑由天一亭運籌堂至橘林書院舊址”

63) 金景國,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濟州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9, 13面.

64) 尤菴 宋時烈을 가리키니, 巴串에서 살았으므로 파옹이라 한다

65) 『勉菴集』 第1卷, 「掛弓軒次板上韻」.

만들어서 국가가 거의 망하게 되니 선생이 두려워하여 숙청하고 물리쳐서 퇴폐 하는 풍조에 지주가 되었으니 그 공로가 홍수를 다스린 우왕보다도 월등합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하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천하를 위하는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sup>66)</sup>라고 상찬 한다.

그런가하면 제주도에서 勉菴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한가할 때 宋子(宋子大典)를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見聞이 얕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sup>67)</sup> 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동문인 중암 김평묵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는 「누생은 망령되게 송서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요령을 만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으니 읽는 법을 두세 줄 글로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68)</sup> 라는 구절이 있는 것들을 볼 때 그의 尤庵 奉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勉菴은 書齋生活을 벌여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思想的으로 가장 활력이 넘쳤던 41세에 流配를 당했기 때문에 學問的 交互關係의 斷絶을 매우 우려했던 것 같다.

큰아들 영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만 멀리 떨어져서 스승과 벗의 접촉이 드물게 되었으므로 구구한 근심이 실로 적지 아니하다.」<sup>69)</sup> 거나 「스승을 가까이 하고 벗을 사귀면서 지혜와 견식을 넓히지 못하는 듯하니, 그 낭패를 말 할 수 없다.」<sup>70)</sup>고 토로했다. 이러한 토로가 단순히 사람과의 접촉을 그리워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다만 3년 동안이나 사우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 1치쯤의 전진이 오늘날 1자쯤의 후퇴를 면치 못하니 멀리서 탄식하고 애석히 여기는 마음을 다 말할 수가 없다.」<sup>71)</sup> 라는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 면암이 원했던 것은 學問 勉勵의 분위기 바로 그것이었다. 동문인 유기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圍籬安置되어 自益할 길이 없으니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sup>72)</sup> 라고 하였듯이 면암은 친구 간에 학문을 勉勵하는 자익의 분위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 비록 면암이 기대했던 자익의 분위기를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왕래 宗友자들로 인해 면암의 학문적 교로단절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66) 『勉菴集』, 祭文, “惟宋文正命世英豪陰陽剖判兩段一刀寤寐京周祖述考亭全體大用宇宙塞充黑水釀禍蔑禮毀經謂朱可侮謂聖可名樹黨植朋幾覆宗祏先生是懼關攘廓清砥柱頽波功坳抑洪非一人私爲天下公念諸先生孳循帝命”

67) 『勉菴集』, 書, 「答永祚甲戌四月十日」, “余閑中看宋書日愧前者浪度淺之爲見也”

68) 『勉菴集』, 書, 「上金重菴 甲戌十月二十二日」, “曩生妄以宋書近數朔掛目而未得其領要之萬一幸以讀法數三行下示如何”

69) 『勉菴集』, 書, 「與永祚 甲戌二月十日」, “但以緣於離索罕接師友則區區憂慮 ”

70) 『勉菴集』, 書, 「答永祚 甲戌十月二十日」, “而似未得親師就友以進知見則其爲狼狽不可說也”

71) 『勉菴集』, 書, 「答永祚 乙亥二月二十一日」, “只三年離索昔者寸進未免尺退遠外數惜不可言也惟除却客念”

72) 『勉菴集』, 書, 「答柳聖存 基一甲戌三月」, “而至其越海囚棘資益無地則尤不勝憧憧也”

그렇다면 勉菴이 고대했던 自益의 분위기는 다른 아닌 사승관계와 친교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당대 華西學派 특유의 학문적 交互關係를 의미한다. 이를 두고 勉菴은 師門이라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 사문이란 스승의 문하를 지칭하는 師門은 물론이거니와 유교의 문화를 일컫는 斯文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師門이란 斯文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따라서 勉菴에게 중요한 것은 사문에 대한 그리움이며 나아가 그것은 곧 사문의 보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勉菴은 당시 자신의 上疏로 인해 사문의 후사가 끊기 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華西 사후 華西學派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金평묵에게 보낸 편지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어 위로 사문을 부지하고 제생을 위로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sup>73)</sup> 라고 사문의 보존을 부탁한다.

勉菴은 그 자신이 능동적으로 濟州文士들과의 관계를 서둘지는 않았다. 대신에 勉菴은 謫所에 있는 동안 문을 닫아걸고 방안에 앉아 맑은 굴 향기를 음미하면서 때로 소동포가 적소에서 桂酒를 찬미 했듯 막걸리를 맛보면서 마치 먼 곳에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책상에 가득 찬 글 보기를 즐겨했던 것이다.<sup>74)</sup> 이 즈음 勉菴은 流配人신분으로 湖西사람 孟文浩, 崔榮煥, 湖南사람 崔勝鉉, 朴海量, 金孝煥, 金衡培, 安璣煥, 李弼世<sup>75)</sup> 등의 방문을 받는데 流配地 濟州에 한 사람의 流配人을 위해 이처럼 많은 外地人들이 來訪한 경우도 드문 게 사실이고 보면 勉菴의 사람됨이나 위치를 짐작케 하고 이미 이전부터 호서사람이나 호남사람들에게 名望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안달삼, 김희정, 강기석, 김용징, 김훈, 김치용, 김양수 그리고 이기온, 강철호 등의 제주문사들과도 면담은 중유<sup>76)</sup>하였다. 원래 從遊란 학덕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는 행위로서 고위 政客이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제주문사들이 행하는 친교의 대표적 행위양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勉菴의 濟州 教學活動 흔적은 師友關係를 통해 유추하는 길이 비교적 용의하다. 이를 테면 당시 往來 從遊했던 濟州文士들 가운데 안달삼은 한말도학의 3대 학파 가운데 하나인 장성의 노사 기정진의 연원<sup>77)</sup>인 蘆沙學派의 한 사람으로 면담과 노사를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김희정은 제주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73) 『勉菴集』, 書, 「上金重菴 甲戌」, “千萬寬抑上扶斯文下慰諸生區區伏望耳”

74) 『勉菴集』, 詩, 「次李禧寄示韻」參照

75) 『勉菴集』年譜, “湖西人孟文浩, 崔榮煥, 湖南人崔勝鉉, 朴海量, 金孝煥, 金衡培, 安璣煥, 李弼世 皆越海來謁”.

76) 『勉菴集』年譜, “如安達三, 金義正, 姜基碩, 金龍微, 金燾, 金致略, 金養洙 諸人 往來從遊”.

77)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參照.

면암의 文人이라 칭했고 후일 면암의 사우록에도 등재<sup>78)</sup>된 사람으로서 명실공히 면암의 濟州 初傳(제주도 1대 제자)이다. 당시 濟州儒林에서는 道學으로는 안달삼을, 詩學으로는 김희정을 南洲 제일인자로 손꼽았는데 그들이 능력은 면암과의 從遊로 더욱 확장된다.

勉菴이 解配時 金羲正을 同行<sup>79)</sup>시켰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승의 도타운 애정을 느끼게 되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金羲正이 능력은 그의 개인적인 소양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기정진이나 최익현 같은 거유들과 직접 면대할 수 있었던 안달삼은 그의 학문의 폭도 깊고 넓어 道學의 南方師表라 불림을 받았으며 그의 학문은 아들 安秉宅에게 家學으로 계승되고 안병택은 부백심, 김석익, 김균배, 양찬휴, 현상희, 양성하, 등의 제자를 가르침으로서 朝鮮後期 濟州島의 큰 學脈을 형성하게 된다.<sup>80)</sup> 면암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고자 했던 濟州 文士 들은 많았는데 吳邦烈과 같은 이는 勉菴에게 고을 안의 여러 선비들과 배움을 청하려 하였으나 勉菴이 解配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쉬움의 기록을 남기기도 한다. 강기석은 1858년에 진사에 급제했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되었을 때 내방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면암보다 연장자였음이 분명한데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從遊한다. 이 점은 이기온 역시 마찬가지였다.<sup>81)</sup>

流配의 가혹함은 대부분의 流配人들에게 流配의 現實을 悲劇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끝내는 流配人과 流配的 현실을 敵對적인 대립관계로 놓아, 살아갈 수 없는 流配的 現實을 살아가야하는 「설움」을 파생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勉菴의 경우와 같은 파격적인 내방은 流配的 현실이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脫流配的 현실의 의지를 날게 하고 나아가 유토피아적 전망을 획득하게 하였음은 물론이다. 斥邪衛正의 義兵運動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소산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체로 유토피아적 전망은 그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 내부의 집단적인 힘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필경 의식의 운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데 그러나 勉菴은 많은 내방객들을 통해 朝鮮朝 後期の 時代의 悲劇에 동참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힘을 感知함과 동시에 流配的 상황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의 개인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意識의 運動 또한 맹렬히 전개하였음을 보게 된다.<sup>82)</sup> 그러한 의식의 운동에 대한 구체적 證

78) 前掲書 參照.

79) 『勉菴集』年譜, “門人金羲正舊館人尹奇福陪行”.

80) 梁鎭健, 『朝鮮後期 濟州教育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그 意義에 관한 研究』, 교육사상연구, 2006. 12面.

81) 梁鎭健,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研究』, 韓國教育史學會, 2002, 218 - 219面.

82) 高昌錫·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1989, 279-280面..



要가 그의 제주에서의 敎學活動인 것이며 宋時烈등의 淵源에 대한 강한 집착인 것이다. 특히 謫所에서 면암은 宋時烈의 글에 깊이 천착하였는데 校宮에 간직된 「尤庵集」을 빌어 潛心玩索하는가 하면 「橋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sup>83)</sup>을 통해서도 宋時烈의 공로가 홍수를 다스린 중국의 禹王보다도 월등하다고 자신의 연원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流配 漢詩 「掛弓軒次板上韻」을 통해서도 宋時烈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표시한다. 동문인 金平默과 큰 아들에게 보내는 流配 書簡에서도 宋時烈에 대한 그의 경외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勉菴이 謫所에서 안으로는 宋時烈에게 깊이 沈潛했다. 또한 면암이 제주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流配書翰을 통해 잘 보여준다.<sup>84)</sup> 「...귀양살이 하는 몸이라서 무료하기 짝이 없으나 약간 위로가 되는 것은 가까이 있는 梁公(양현수 목사)이 남겨 놓은 인자한 덕이 이곳 사람들의 삶과 뼈 속에 스며 있어 들을 만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멀리는 五賢들이 남겨 주신 은덕이 없어지지 않아 백세후에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옷깃을 여며 존경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즉 제주도는 양현수 목사나 五賢덕에 비교적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굴림서원 유지에서 다섯 선생에게 올리는 면암이 쓴 제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작은 제주도는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아! 우리 오현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 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sup>85)</sup> 다시 말해 濟州 流配人 덕택에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은 개명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즉 流配人이 濟州 敎學活動의 미친 影響을 勉菴 자신이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勉菴이 濟州島에서 가장 매혹을 느꼈던 것은 漢拏山이었다. 그는 流配 시 머지 않아 漢拏山을 유람하리라는 것을 그 자신이 벌써부터 알고 있었기라도 하듯이 한라산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으며 流配 漢詩를 통해서도 느낌을 토로하였다. 그가 解配되어 떠날 때 쓴 「別刀鎭乘船」을 보면 流配的 상황을 벗어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한라산에 대한 애착을 流配 漢詩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幾年絕域隔紛塵	낙도에서 몇 해를 세상과 등졌던가
四月南風雨露新	초여름 좋은 풍경 우로마저 새로워라
山靄都收波面靜	산안개 걷히고 파도는 고요하여

83) 『勉菴集』祭文, 參照.

84) 양정선, 『勉菴 崔益鉉의 濟州流配書翰 研究』, 德齊 申塔俊 博士 華甲紀念論叢, 1989, 101面..

85) 『勉菴集』祭文, “蕞爾耽羅久未破荒龍言皮服陋矣俗尙噫我五賢于坎于職觀感興作民到今式苟究其由意實”自天

一場快做壯遊人	한바탕 장유하는 사람 되었구려
縹緲靈山不受塵	저 표묘한 한라산 깨끗도 한데
鹿潭瀛室渡頭新	백록담 영실 더욱더 새롭구나
纍迹雖慚仁智樂	나 같은 신세 어찌 산수의 즐거움 알라만
庶能誇我遠遊人 <sup>86)</sup>	그래도 먼 데를 구경했다 자랑하리

특히 解配가 되자마자 꿈에 그리던 漢拏山 遊覽을 하고 「遊漢拏山記」를 남긴다. 그는 한라산의 가치를 金剛山이나 智異山에 비기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이 섬은 협소한 외딴 섬이지만 大海의 砥柱요, 3천리 우리나라의 水口이며 捍門이므로 외적들이 감히 엿보지 못한다. 그리고 山珍海錯 중에 임금에게 進供하는 것이 여기서 많이 나며, 공경대부와 匹庶들이 일용에 소요되는 물건과 경내 6만~7만 호가 경작하고 채굴하는 터전이 여기에서 취해 자급자족이 되니 그 利澤과 功利가 백성과 나라에 미치는 것이 金剛山이나 智異山처럼 사람에게 觀光이나 제공하는 산들과 함께 놓고서 말할 수 있겠는가?..」<sup>87)</sup>

이후 친구들에게 流配 期間의 소득으로 漢拏山을 본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었던 점에 비추어 보자면 그의 漢拏山에 대한 매료가 상당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형에게 보내는 流配 書簡에서 자신의 느낌을 「한라산을 구경할 수 있는 因緣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sup>88)</sup> 라고 한마디로 표출하는데 즉 漢拏山과 자신과의 因緣을 그야말로 차원을 달리하는 만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차원을 달리하는 만남에는 謫所의 鍾유자였던 이기온과 더불어 제주 문사 여러 명이 동행<sup>89)</sup>을 하게 된다. 소동파가 혜주에 유배 시 白水山을 여러 지기들과 같이 유람을 하였듯이<sup>90)</sup> 면암 역시 것처럼 동행을 하였던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師弟同行이라고 한다. 옛 선비의 師弟關係를 오직 師弟同行이라는 「서로 만남」 속에서야 비로소 心許하여 終平生 事之 私淑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師弟同行은 이처럼 운명적이라고 돌발적인 하나의 「事件」이었던 것이다. 勉菴과 이기온의 사제동행은 勉菴의 濟州 教學活動 가운데 意味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의미를 기리는 흔적으로 文淵社 같은 遺蹟이 있다. 1931년에 창설한 문연사는 勉菴과

86) 『勉菴集』 第1卷, 「別刀鎭乘船」.

87) 『勉菴集』, 記, 「遊漢拏山記」 “夫以彈丸孤島砥柱大海在邦爲三千里水口捍門外寇不敢伺而山珍海錯可合御供者多由是出焉公卿大夫匹庶日用所需境內六七萬戶耕鑿資業亦於此取足其利澤功利之及於民國者又豈可與智異金剛”.

88) 『勉菴集』, 書, 「答伯從兄 甲戌十一月七日」, “漢拏仙緣是豈容易者耶”.

89) 『勉菴集』 記, 「遊漢拏山記」 “約土人李琦男前進指路冠者十餘”

90) 『蘇東坡 評傳』, 參照.

이기온의 유덕을 추모하여 매년 정월 중순 享祀하는 제단으로서 文淵社祭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연사의 옛터에는 勉菴이 직접 식수한 古木이 있으며 이기온이 勉菴을 사모하여 刻石한 「師長樹抱且拜」라는 글이 남아있다. 이러한 문연사제와 같은 행사는 제주 유림에게는 위대한 師表의 상징이다. 문연사는 日帝強占이라는 그래서는 안 될 상태아래 잠들어 있는 儒林들의 意識을 回復시켜주는, 하여 勉菴이 갈구했던 國權 回復의 그래야 할 상태로의 이행을 위해 儒林의 意識을 깨어나도록 하여 주는 象徴的 役割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師弟同行 덕에 勉菴은 그의 스승인 華西와 어깨를 같이 하는 당대의 巨儒 蘆沙 奇正鎮과도 인연을 갖게 되는데, 즉 蘆沙의 濟州 初傳인 安達三이 勉菴과 공유하는 동안 스승의 글을 여러 편 勉菴에게 보여줌으로써 勉菴과 蘆沙와의 因緣을 성사시켰던 것이다.<sup>91)</sup> 이 때 勉菴을 「이는 우리 華西 선생의 旨訣과 대략 비슷하다.」<sup>92)</sup>하고 謄抄하여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사의 글을 보관케 되는데 解配가 되자마자 長城에 들러 노사를 뵈는 등 朝鮮 末期 斥邪衛正의 두 巨儒 화서와 노사와의 만남을 온몸으로 證言한다. 하여 그는 「내가 濟州에 있을 때는 漢拏山을 보았고 長城을 지날 적에는 奇正鎮을 뵈었다.」<sup>93)</sup>고 토로 하는데 이 때 勉菴의 나이 43세, 奇正鎮의 나이 78세 때였던 것이니 그러한 운명적 만남의 성사에는 安達三이라는 濟州文士가 결정적인 구실<sup>94)</sup>을 하였던 것이다. 즉 勉菴은 일찍부터 노사의 명성은 들었지만 학문을 구체적으로 접한 적이 없다가 濟州島에서 만난 노사의 제자 安達三을 통하여 노사의 글 수십 편을 읽어 보고는, 자기의 스승인 화서의 학설과 흡사하여 기뻐한 나머지 두 권의 책으로 베껴서 가지고 가던 중<sup>95)</sup>, 장성을 지니며 노사를 직접 뵈고 崇慕의 情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流配地 濟州에서 勉菴이 깊이 천착했던 宋時烈이나 은혜롭게 만남 奇正鎮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流配를 왔던 宋時烈에 대한 同病相憐의 깊은 애착도 있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宋時烈이나 奇正鎮 혹은 스승인 李恒老에게서 공통적으로 얻은 것은 春秋大義에 입각한 尊王攘夷의 義理思想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특히 朝鮮朝 性理學의 正統理念인 義理思想을 勉菴이 濟州儒林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했던

91) 高昌錫·梁鎮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1989, 281-282面..

92) 『勉菴集』, 年譜, “以爲此與我華西先生旨訣”

93) 『勉菴集』, 「上奇蘆沙正鎮」, “吾在濟州見漢拏過長城謁奇丈席”, 乙亥 九月 十四日.

94) 『勉菴集』, 年譜, “因其門人安達三”.

95) 『勉菴集』, 年譜, “得見其論學文字數十篇以爲此與我華西先生旨訣大畧相似遂謄抄爲二冊子而歸”

敎學의 구체적 내용이기도 했기에 勉菴이 견지했던 斥邪論의 내용적 골격인 義理思想의 연원들로서 宋時烈이나 奇正鎭 혹은 李恒老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사실 李恒老나 奇正鎭 양측 모두가 의 私淑弟子들이고 보면 義理思想의 연원으로서 宋時烈에 대한 勉菴의 천착은 자연스럽고도 나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丙子胡亂 이후 排淸崇明에 입각한 宋時烈의 義理思想이 당대의 至上命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崇明論은 事大意識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데 비하여 면암의 斥洋 · 斥倭論은 事大의 견제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리사상의 순수한 발휘라 할 수 있다. 즉 鄭夢周의 節義精神과 趙光祖의 道學思想 그리고 趙憲의 節義精神을 승계하는 宋時烈의 義理思想은 이항로나 기정진을 통해 勉菴에게 승계됨으로서 이른바 義理論의 正脈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勉菴은 이러한 義理思想의 승계노력을 통해 자신의 장래, 즉 義兵運動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때의 긴장감은 「偶吟」이라는 流配 漢詩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이 詩는 한편의 反省文이자 警告文의 성격을 띠고 있어 西勢東漸의 상황에서 勉菴의 우국충정의 뜻을 나타낸다.<sup>96)</sup>

聲言千載也分明	세월이 갈수록 성인 말씀 더 분명하니
島戶猶聞讀字聲	섬마을에도 글 읽는 소리 들려오네
可惜滔滔名利窟	가여워라 저 수없이 날뛰는 무리들
每緣身計國憂輕 <sup>97)</sup>	제 몸만 알고 나라근심 몰라주네

이러한 勉菴 등의 영향으로 朝鮮朝 後期 濟州 敎學秩序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畿湖系列의 학풍에 의해 주도될 수 있었는데 기호학풍과 격동기적 상황 전개에 대한 제주 유림들의 성찰적 반응이 연계되어 전체적인 제주 교학의 흐름은 척사위정류의 사상적 전개가 滿開될 수 있었다. 특히 면암이 유배된 시기는 사상적으로 그의 이론적 척사론이 動態化 되는 과정의 길목이었기에 그러한 영향으로 제주 유림의 사상적 변화 또한 척사운동적 성격의 변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뒷날 면암이 對馬島에서 순국하였다는 소식에 金錫允, 高士訓, 金萬石 등이 濟州 義兵運動을 주도하였던 예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乙未條約 이후 全國에서는 여러 義兵活動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에 비해 뒤늦게 일

96) 高昌錫 · 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1989, 282-283面.

97) 『勉菴集』 第1卷, 「偶吟」.

어났던 濟州에서의 義兵事件은 泰仁에서 거병하여 全羅道 地方을 휩쓸다가 淳昌에서 日軍에게 잡혀 對馬島에 끌려가 憤死한 勉菴의 殉國과 기정진의 손자인 의병대장 奇宇萬의 影響이 絶對的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勉菴이나 蘆沙가 濟州 儒林에게 끼친 영향력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朝鮮朝 敎學秩序는 地域的인 이유와 더불어 自派 勢力의 確立을 모색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크게 嶺南學派와 畿湖學派로 大別하는 것이 대체적인 例인데 流波와 系譜的 正統性을 이룬다는 견지에서 특정 학파나 학통에 대한 士林의 執着은 대단한 것이었다. 즉 각기 다른 계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나 혹은 산발적으로 師弟關係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특정 流派의 連帶意識은 매우 강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濟州島의 경우는 朝鮮朝 敎學秩序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여 주는데 이를테면 영남학파나 기호학파내의 사람들이 特定 流配人의 신분으로 산발적, 간헐적으로 濟州에 來島함에 따라 濟州 儒林들이 특정유파와 계보적 정통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학파나 학통의 분위기와도 쉽게 同化함으로 해서 學問的 傳統에 대한 일종의 混亂相을 노정시키는 것이 그 例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조선조의 濟州島가 地理的으로나 政治的으로 또는 敎學的 位相으로서나 특정 학파의 영향력을 고집할 만한 學問的 自生力을 갖고 있을 만큼 그 수준이나 업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sup>98)</sup>

李應鎬의 家學的 傳統은 바로 濟州島의 特異한 敎學 秩序를 보여주는 한 例로서 李瀾의 영남학파 분위기가 후기에 들어 자연스럽게 기호학파의 그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이 변모의 과정에는 어떤 유배인과 접촉을 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들어서 濟州文士들이 직접 出陸하여 內陸의 巨儒들과 師弟關係를 맺는 경우도 非一非再하여 그들의 출륙이 제주의 교학질서 형성에 流配人들과 함께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李應鎬의 경우가 그 두 가지 영향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例이다. 즉 유배인으로서 勉菴의 영향과 제주문사 고성겸의 출륙에 의한 蘆沙와의 師弟關係 맺음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李應鎬의 논조는 조선말기 척사론의 거장인 勉菴과 기정진에게서 승계된 것으로서 그 강경함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응호의 「早吳君大鉉斥洋敎」라는 漢詩가 이 분위기를 잘 대변해 준다.

98) 高昌錫·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1989, 283-284面.

근년에 야소교가 남쪽으로 번져 와서  
 삼의사가 의병을 일으켜 모두다 배어났다.  
 우리의 도가 아닌 사특한 무리를 물리침을 명분으로 하였고  
 옛 책에서 읽은 대로 많은 사람에게 맹세하여 병위를 떨쳤다.  
 용수의 일에 생각이 미쳐 회민 이어짐이 일어나고  
 홍수를 다스린 것과 같은 명예를 영원히 끝나 버렸으나  
 그대들의 영혼은 오히려 우리 곁에 돌아와 있어  
 대한제국의 조정에서 한라산 바라보기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sup>99)</sup>

天主教徒들과 제주도 民衆 사이의 충돌로 수 백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제주도 근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인 흔히 李在守亂 또는 聖敎亂으로 불리우는 1901년의 농민항쟁에 대한 詩로서 李應鎬는 이 사건이 프랑스 신부의 교회 권력과 봉세관의 위세를 利用하면서 온갖 횡포를 부린 敎徒들의 소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면서 이에 맞서 일어난 소위 吳大鉉, 姜遇伯, 李在守, 三義士는 정의에 입각하여 도민 대중의 民生과 人權을 싸움으로 지킨 제주도민의 자랑스런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會民 즉 義兵에 대한 강조는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李在守는 일찍이 趙光祖와 더불어 金宏弼의 門人으로서 스승의 소위 小學實踐主義와 同門의 道學思想에 동참하다가 中宗 15년(1520)에 己卯士禍로 인해 제주도 대정에 流配를 와 古阜李氏 濟州入島組가 된 李世番의 後孫으로서 先代의 義理論에 입각한 理想主義를 家學的 傳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에 좌익계 거목로서 활약했던 本名이 李承珍이 었던 金達三에게서도 찾아보게 된다. 또한 1896년(건양 1년) 3월 濟州人 강유석과 송계홍 등은 신체제의 강행에 반대하며 丙申民亂을 일으킨다. 그 무렵 전국 도처에서는 단발령에 반대하는 의병과 소요가 그치지 않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이에 고무되어 강력한 투쟁준비를 서둘러 수천 군중을 이끌고 신설된 경무청에 난입하였다. 그들은 강유석과 송계홍을 선두로 「왜양축척(倭洋逐斥)」 등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집기를 내동댕이치고 관아의 공문서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濟州 牧使의 苛斂誅求는 방성칠로 하여

99) 耶敎比年漸南海 / 三君起義盡誅除  
 斥邪旌號非吾道 / 誓衆兵威讀古書  
 思到龍溪堪作傳 / 抑如鴻水永終譽  
 子與千載猶還魄 / 不愧韓朝望漢孳

금 戊戌民亂을 일으키게 한다.<sup>100)</sup> 이러한 濟州人의 民亂은 勉菴의 衛正斥邪思想的 抵抗運動의 影響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엽에 역사적 상황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과정에서 조선조 후기의 유학자들은 유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역사적 변천에 저항하는 보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민족 주체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적 입장에 따른 행동양식은 특징적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일제의 침략에 조선 정부가 무기력하게 붕괴되는 현실을 目睹하자 유림들이 보이는 입장으로서 이를테면 李膺鎬의 경우는 위의 시에서 보듯 의거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舉義掃淸하는 적극적 입장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李膺鎬에게 승계되었던 것이며 集議契의 결성이 그 승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李膺鎬의 舉義掃淸하는 강경함은 그가 주도하여 결성한 집의계의 1차, 2차 선언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광무 9년(1905)에 선포된 집의계 1차 결성 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우국충정과 예의도덕을 만천하에 밝혀 모든 백성이 감동하도록 행동할 것이며 왜놈을 단칼에 베어버릴 것을..」 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體制의 自強이라는 기조 위에 척사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융희4년(1910)에 선포된 2차 선언문은 「...무력투쟁의 구국의거는 을사조약과 한입합방의 치욕을 씻고 국권을 회복하는데 있음이니 더한 대의가 있겠는가...」 라는 구절에서 보듯 1차 선언문보다 그 논조가 강경하며 이제 이론적 척사론의 단계를 넘어 무력투쟁의 확실한 결의를 보인다. 즉 외세의 도전에 의해 조성된 주체성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의 차원이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勉菴으로부터 승계된 李膺鎬의 강경한 척사논조는 집의계의 활동을 통해 당대의 제주 유림에 넓게 공유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愼鴻錫 같은 제주 문사의 문집에 李膺鎬가 발문을 써 주었던 예나 혹은 李膺鎬와 교학관계가 돈독했던 許鉀과 같은 이가 李膺鎬의 종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李膺鎬의 가학적 배경인 勉菴에 대한 碑文을 남긴 예 등이 그것을 반증한다.

勉菴의 제주 교학활동은 그 영향력의 授受關係의 측면에서 볼때 매우 포괄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특히 勉菴이 유배서간에서 「하늘이 斯文에 재앙을 내린지가 이미 오래니 더욱 무한한 근심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성리학(斯文)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의 그의 포괄적인 영향력은 그 시사하

100) 濟州道, 「濟州道誌」 第2卷., 540 - 544面.

는 바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인 道統은 그 마지막 승계 유현으로서 勉菴을 거론하는데 이러한 당대 지성계의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勉菴과 제주 유림과의 관계 맺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도 모른다.<sup>101)</sup>

우선 勉菴은 다른 여타의 流配人들에 비해 濟州文士들과의 교류가 빈번했었으며 따라서 그 영향력의 전파도 풍성했었음을 알 수 있다. 勉菴의 제주 초전은 김희정이 유일하고 따라서 초전(제1대 제자)으로서 양성하의 제보만이 正統的 흐름으로 눈에 띄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리학의 繼往開來的 전통의 승계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勉菴의 제주 교학활동의 폭이 여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sup>102)</sup>

### 3. 濟州教育에 끼친 勉菴의 影響과 意義

#### 가. 義兵運動과 秘密結社

1906년 면암은 開化政策에 反對하고 日本의 國權 侵掠에 抗拒하여 義兵을 일으켰다가 결국 對馬島에 붙잡혀가서 74세로 殉國한다. 乙未條約 이후 全國적으로는 여러 義兵運動이 있었지만 濟州島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活動이 없었다. 그러나 勉菴이 74세의 나이로 泰仁에서 舉兵 하였다가 淳昌에서 잡혀 결국 對馬島에 끌려가 殉國하였다는 소식은 濟州義兵運動을 점화시키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勉菴이 對馬島에서 감금된 지 4개월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나자 儒林들은 『春秋大義日月高忠』이라고 써서 높이 걸었고 수만 명이 찾아와 초량에 도착한 시신 앞에서 애곡 하였던 까닭에 3여 년 전부터 因緣을 맺고 있던 濟州文士들의 그 소식을 외면할리 없었다. 勉菴의 순국 소식에 자극을 받은 濟州儒林 高士訓, 이석공, 金錫允, 조인관, 노상옥 등은 高宗이 退位되고 軍隊가 해산을 당한 것을 계기로 1908년 義兵運動을 도모하게 된다. 결국 勉菴의 濟州教學活動은 濟州義兵運動을 가능케 하기 위한 滋養分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전라도 長城에서 義兵을 일으킨 奇正鎭의 손자 奇宇萬, 奇參衍과 연결되어 비밀리에 광양에 倡義所를 마련하여 황사평에서 조

101) 高昌錫·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1989, 286-288面.

102) 高昌錫·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1989, 289面..



련하였다. 당시 倡義總師는 김석윤, 참모와 모병은 고사훈, 조련과 무기는 노상옥이 담당하였다.

1909년 2월 경 참모장 고사훈은 의병 김만석을 대동하여 대정현에서 檄文을 돌리고 의병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倭警들에게 체포되어 서광리에서 김만석과 함께 순국하였다. 그리고 김석윤은 제주시 광양 창의소를 급습한 일경에게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노상옥은 육지로 탈출하였다.<sup>103)</sup>

이때 그들이 돌린 격문은 비장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國恩에 대한 충성이요, 父母에 대한 孝道다, 만약 자식으로서 부모의 困窮함을 구하지 못하면 불효요, 나라의 위급함을 걱정하여 나서지 않으면 不忠이 되는 것이니 이는 禽獸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교활한 왜적이 병자년 이래 甘言利說과 강압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더니 乙未條規로 나라의 主權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눈앞에는 倭敵의 무리가 상산을 짓밟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이 강토를 송두리째 삼킬 것이요, 우리들은 왜적의 奴隸가 될 터이니 이 어찌 좌시할 수 있으랴. 오호라! 天道가 무심하리오. 京鄕 각지의 忠義志士들은 國權守護를 위하여 蹶起하였다. 우리 제주민도 盡忠報恩하고 子孫萬代에 先을 지키게 할 때가 왔다. 피 끓은 충의지사는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여 국운을 회복하고 성은에 보답할 자는 의성을 합창하여 三千里錦繡江山을 지키는 데 생사를 같이 한다면 이보다 다행하고 이보다 더한 忠孝가 어디 있으랴, 熱血의 忠義志士여, 팔뚝을 걷어 부치고 總蹶起하라.」<sup>10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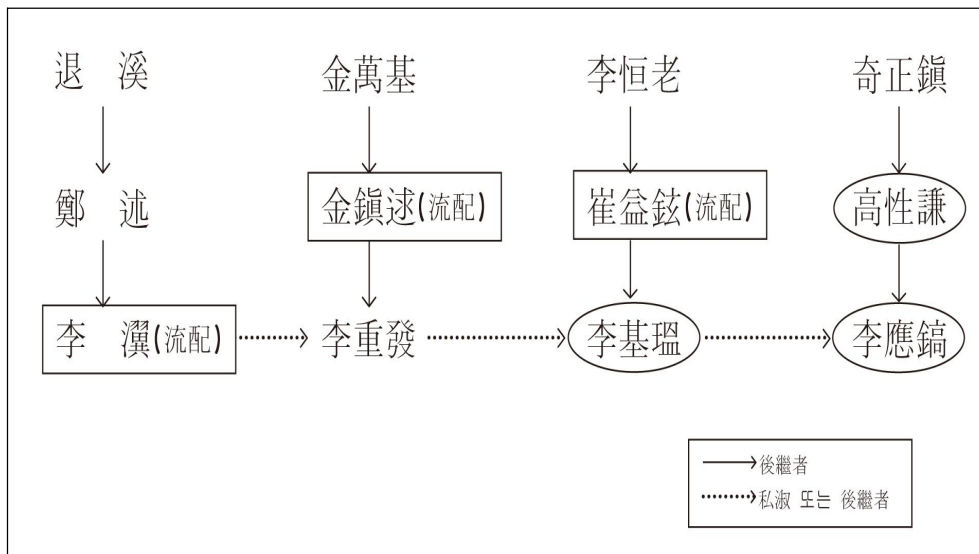
檄文에서 보듯이 면암의 순국이 濟州文士들에게 義兵運動의 이념을 배가시켜 주었다면 蘆沙 奇正鎭의 손자인 의병대장 기우만은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병운동의 현실성을 강화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濟州義兵運動이 華西學派와 蘆沙學派의 전통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사의 斥邪論議는 그 뒤 思想史的 系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화서의 척사논의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고 특히 면암에 의해 斥邪運動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濟州島에서의 義兵運動을 보면 면암의 영향을 물론이며 노사학파의 척사논의마저 노사의 손자인 기우만을 통해 제대로 전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제주도 抗日運動으로 秘密結社 集義契가 있다. 集義契는 면암이 濟州流配 때 往來 從遊했던 제주문사

103) 梁鎭健, 『朝鮮後期 濟州教育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관한 研究』, 교육사상연구, 2006. 12면.

104)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226-227면.

李基璫의 아들인 李膺鎬가 주도한 모임으로서 1910년 韓日合邦으로 기울어져 가는 國運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사항쟁을 맹약한 일종의 비밀결사이다. 집의계에는 이용호를 비롯하여 金佐謙, 金炳路, 金炳龜, 金履中, 徐丙壽, 高錫九, 金錫翼, 姜哲鎬, 姜錫宗, 任成淑, 金基洙 등 12명의 제주문사들의 뜻을 같이 한다. 12명 가운데 이용호는 이기온의 아들로서 노사 기정진의 문인인 고성겸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勉菴의 영향을 家學으로 승계하고 있었다. 105)집의계라는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제주유림들이 벌였던 조선태만세 시위 역시 조천 만세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집의계의 장두격인 이용호의 스승이 고성겸 이었다는 사실과 고성겸과 같은 조천 출신 안달삼, 이계징 등이 한말 척사론의 거유였던 기정진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조천만세운동의 사상적 기저와 함께 만세 시위에 대한 제주 유림의 공유를 이해하게 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아울러 조천만세 운동의 모의를 가능케 했던 김시우는 면암 최익현의 유일한 제주 제자 김희정의 문인이었음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의할 내용이다.

여기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참고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106)



<그림 V-2> 勉菴의 思想이 濟州 義兵活動에 미친 影響 系譜

그런가 하면 강철호는 勉菴과 직접 왕래 중유했던 사람이며 김병로는 이기온의 제자로서 모두 면암의 영향이 컸던 제주문사들이다. 그런가하면 김좌겸은 추사 김

105) 梁鎮健, 『朝鮮後期 濟州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教育思想研究, 第20集, 2006, 2006, 12-13面.

106) 高昌錫·梁鎮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 1989, .284面.

정희의 종유자였다. 이로써 보건대 집의계 결성 역시 화서학과와 노사학과와 전통 아래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무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천지를 공경하고 神明을 숭배하며 忠君愛國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遺命이거늘, 슬프다. 우리 태조께서 조선을 건국하신지 3백여 년이 흘러오는 중엽에는 倭國과 淸國의 침입으로 苦難을 받아왔다. 이제 高宗 光武에 이르러서는 守古黨, 開化黨의 분쟁과 간신 모리배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國力이 衰盡했다. 倭寇는 그 시기를 타서 光武 9년 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게 合邦의 凶計임을 알게 되고 장성의 기우만의 의거를 일으킨 때를 맞추어 동지 약간인과 더불어 의논하고 집의계를 결성하는 바이다.」<sup>107)</sup>라는 집의계 취지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체제의 자강이라는 기조 위에 척사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그들의 民族意識은 濟州의병운동이 그러하듯이 주자학적 화의론에 연결된 차등적 배타의식이 성숙하여 외세라는 변수를 맞이하여서는 민족적 역사실천의식으로 심화된 자주독립사상이었다.<sup>108)</sup>

## 나. 民族教育運動으로의 展開

朝鮮後期 斥邪論의 영향으로 일어난 濟州島 義兵運動과 秘密結社는 이후 日帝時代 제주도의 民族教育運動과 抗日運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히 1919년 3.1 운동의 영향으로 3월 21일에 일어난 제주도 조천만세운동은 척사론의 영향으로 심화된 제주도 나름의 自主獨立運動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주도에서는 이 때 직접 서울에서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귀향한 휘문고보 학생 金章煥에 의하여 경향 각지의 운동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고향 조천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1919년 3월 21일 미모동산에서, 22일은 조천리에서, 23일에는 장터에서, 24일에는 함덕리에서 연일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까닭에 주동자 1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sup>109)</sup> 제주도 기독교계의 조봉호와 함께 1919년 5월 초 군자금 기금모금을 위해 獨立犧牲會를 조직하였던 최정식의 기록<sup>110)</sup>을 보면 그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朝天萬歲運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儒林은 물론 각 계에 조천만

107)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212면.

108) 梁鎭健, 『朝鮮後期 濟州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教育思想研究, 第20集, 2006, 2006, 14면.

109)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214 - 215면.

110) 濟州市, 『慕忠祠記』, 73면.

세운동의 과장이 컸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조천만세운동 이후 제주도에서는 일제에 대해 많은 항쟁이 계속되었다. 항만노동자, 해녀 등이 전개한 반일 항쟁의 다양한 갈래는 바로 이 조천만세운동에서 배태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노사 기정진의 제자이자 면암 최익현과 교류했던 안달삼의 손자인 안세훈은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제주도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 역시 「조선공산당 야체이카사건」 판결에서 「대정8년 제주도에서 조선독립만세 소요사건이 발생하자 여기에 자극을 받고 점차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sup>111)</sup>고 응변하는데 조선후기 척사론의 영향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教育抵抗運動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1921년 김성숙에 의해 설립된 제주도가과도의 신유의숙의 경우는 전 주민을 교육대상으로 출발하였던 일제하 제주도 민중교육의 모범적인 예이다. 경성고보 졸업생으로서 3·1 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귀향한 김성숙은 6년제 신유의숙을 설립하여 민족적인 성향을 견지하고 있던 교사를 초빙하여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벌인다.<sup>112)</sup> 그런가하면 1920년 한학자이며 신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이선익에 의해 독립을 위한 後進養成을 목적으로 북촌에 설립된 창흥사숙 또한 의의가 크다. 창흥사숙은 신유사숙에 비해 활발하진 못했으나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쳤다는가, 졸업생들이 오사카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펼쳤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적 각성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 신유의숙이나 창흥사숙<sup>113)</sup>의 운동이 私立學校를 기반으로 한 민족교육운동이었다면 公立學校運動으로는 구우공립보통학교<sup>114)</sup>의 경우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립보통학교 편제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민족주의적 색채를 공공연히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황민화 교육에 반대하고 극렬 친일 교사의 실력부족을 이유로 축출운동을 전개하며 동맹휴학에 도입하기도 했다.

일제하 식민지 제도교육으로부터 배제된 민중들의 의식화를 위한 민중교육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운동이 곧 民衆夜學運動이다. 제주도의 민중야학운동은 3.1 운동 이후 제주 청년들이 啓蒙運動 차원에서 노동야학을 개설, 교사로 참여하여 대중계몽을 벌임으로써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듯 1920년대의 야학운동은 進歩的인 意識을 가진 청년들을 담당자로 시작하고 있고, 후반기에 가서는 社會主義

111) 光州地方法院刑事部, 『判決文』, 17年 8月 13日, 參照

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113面.

113) 濟州4·3研究所, “北村里 歷史(1)”, 39 - 52面.

114) 濟州4·3研究所, 『濟州抗爭』, 實踐文學社, 1991, 212 - 216面.

的 色彩가 농후해 진다. 물론 1920년 이전에 조천에서 한 여성에 의해 설립되어 교사 2명이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조선부녀야학<sup>115)</sup>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야학운동은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22년에 구좌면 김녕리에 김녕청년회가 설립한 연경야학회<sup>116)</sup>가 있었고 1925년 함덕의 협성청년회가 설립한 노동야학회<sup>117)</sup>와 함께 같은 해 구좌면 상도리청년회가 설립한 상도야학회<sup>118)</sup>가 있었다. 이러한 야학운동 같은 것들은 제주도 독자적 단위의 교육운동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벌였던 교육운동도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 지방부 조직으로서 제주지부를 결성하였던 예이다. 원래 민립대학운동은 조선말의 國債報償運動에서 시작되고 3·1운동을 계기로 강화된 민간인에 의한 教育振興運動으로서 민족적 자립에 필요한 學術的 근거와 시설에 대한 일련의 민중적 요구운동 이었다. 이를 위해 1923년 3월 29일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가 열렸고 이어 자본금 1천만원 모금을 위해 기성회 지방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직된 지방부는 백여 곳으로 제주도에서도 기성회가 거도적으로 조직되었다.

제주도의 民族教育運動은 學生運動으로도 나타났는데 1926년 7월의 濟州農業學校 學生들의 柳田 교사 배격 同盟休學<sup>119)</sup>이나 1927 5월 대정공립보통학교 삼사학년 100여 명이 교사를 배척하여 벌인 동맹휴학사건<sup>120)</sup>, 1928년 2월 제주공립보통학교 생도들의 同盟休學事件, 1930년 1월 新年祝賀式을 거행하는데 日本國歌와 勅語奉答歌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학교와 경찰이 합세하여 4명의 학생을 퇴학시켰던 조천리 소년단원 피검사건<sup>121)</sup>, 5월 어린이날 행사의 하나로 행군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을 동원하여 30여 명을 검거하였던 대정면 어린이날 사건<sup>122)</sup>, 5월 구우공립보통학교 동맹휴교사건<sup>123)</sup>, 1931년 1월 조천공립보통학교 학생사건<sup>124)</sup>, 2월 화북리 청년동맹원의 소년들에 대한 선동사건<sup>125)</sup>, 3월의 제주농업학교 교장 폭행사건<sup>126)</sup>, 5월의 구우

115) 『東亞日報社』, 1926年 5月 20日字

116) 『東亞日報社』, 1922年 12月 2日字

117) 『東亞日報社』, 1925年 10月 19日字

118) 『東亞日報社』, 1925年 11月 14日字

119)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984 - 989面.

120) 『東亞日報社』, 1927年 5月 18日字

121)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990 - 992面.

122) 『濟州道誌』 上, 397面.

123) 『濟州道誌』 上, 397面.

124)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992面.

125) 『犯罪報告』, 139 - 140面.

126) 『犯罪報告』, 197面.

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사건<sup>127)</sup>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민족적, 계급적 자각은 후일 1941년 김봉각 등에 의해 조선독립을 위한 日本內 濟州靑年들의 秘密結社인 鷄林同志會<sup>128)</sup>의 결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해방 후 제주도 4·3 사건의 저변적 이데올로기 구실도 하게 된다<sup>129)</sup>

---

127) 『犯罪報告』, 188面.

128) 金奉角, 『현해탄을 넘어서』, 濟州文化, 1990, 參照

129) 梁鎭健, 『朝鮮後期 濟州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教育思想研究, 第20集, 2006, 2006, 14 - 16面.

## V. 結 論

이상에서 朝鮮後期 濟州教育에 미친 勉菴 崔益鉉의 影響에 관한 研究을 대략 살펴 보았다.

大院君은 오랫동안 勢道를 부리던 安東金氏의 外戚勢力을 몰아내고 王室中心의 勢道 政治를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반 계층의 횡포를 억제하고 門閥과 黨色을 타파하며 貪官汚吏를 숙청하는 등 內政의 일대 革新을 기도하였다. 이리하여 三政의 紊亂에서 빚어진 民心을 잠시나마 진정시키게 되었음을 훌륭한 그의 치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院君의 지나친 宗室 위주의 專制的 경향은 이에 반감을 품은 趙大妃系의 外戚勢力과 書院의 정리, 戶布法의 실시 등으로 反大院君의 기운을 형성해 가고 있던 兩班 儒林들로 하여금 閔妃와 결탁하여 反大院君波를 형성 시키는 계기를 낳게 했다. 이것이 또한 10년 세도의 大院君을 權座에서 몰려 나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大院君의 실정에 대한 탄핵은 華西 李恒老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丙寅洋擾 직후 上疏를 올려 「앞으로 洋夷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면 철폐한 萬東廟를 復享하고 거국일치하여 孝宗과 宋時烈의 遺旨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1868(高宗 5) 10월 10일에 崔益鉉도 스승의 뜻을 계승하여 무용한 土木工事의 中止와 聚斂 政策의 혁파, 當百錢의 폐지, 서울 4대문 門稅의 폐지 등을 열거하여 大院君의 대내정치에 대한 비판의 첫발을 내디디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上疏로 해서 大院君의 강경한 태도를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大院君 執政 10년에 이르러 閔妃를 중심으로 하는 反大院君波의 형성을 계기로 두 번째 上疏를 올렸다. 즉 1873년(高宗 10) 10월 16일 고향인 경기도 抱川縣에서 承政院의 同副承旨를 辭職하는 상소를 바쳤는데, 그 내용에, 「근자에 옛 제도를 바 꾸게 됨에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습속에 젖어 六臣·六卿도 건백함이 없고 臺諫·侍從도 비방을 피함으로써 이 때문에 조정은 俗論으로 지배되어 있고 人倫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大院君의 政治가 잘못되었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였다. 이로 인해 朝野의 비난의 소리가 물 끓듯 했으나 高宗은 오히려 그를 두둔하는 내용의 批答을 내렸고 崔益鉉도 五條疏를 올려 자기의 뜻을 부연 설명하였

다. 이에 대해서도 朝野에서는 국청은 설치하여 그를 문죄해야 한다는 항변의 소리가 연일 계속되었고 高宗도 上疏의 내용 중에 임금을 비방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하여 不得不 그를 심문케 하였다가 濟州島로 圍籬安置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리안치는 「不可與家屬混處」라 하여 가혹한 刑罰者였음에도 1년 4개월여의 그의 濟州 流配 生活은 形式的인 것이었다. 그의 流配를 전후한 시기에 교체된 牧使들의 厚待, 弟子養成, 본토 친지들과의 부단한 書信 往來, 濟州 지리에 익숙할 정도의 나들이 등은 위리안치인 답지 않게 편안히 유배 생활을 보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育에 미친 影響을 정리해 보면, 그는 畿湖學派의 전통을 승계한 조선조 말기의 斥邪論의 巨儒로서 大院君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제주에 流配되지만 그의 제주 유배생활은 제주도의 학문적 開眼을 위한 강도 높은 敎學的 刺戟이었다. 朝鮮後期 時代意識에 따른 勉菴의 抵抗的 義理論은 濟州儒林들에게도 강한 時代 批判的 認識을 제시하여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李膺鎬를 비롯한 一群의 濟州文士들에게는 集義契라는 秘密結社를 결성케 하는데 直接的인 動因이 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朝鮮末期의 濟州島 敎學秩序의 분위기를 畿湖學派의 學風으로 一新케 하는데 결정적인 役割을 담당하였다.

勉菴은 濟州流配 期間동안 많은 濟州文士들과 사제관계를 맺는데 이를 테면 金羲正같은 이는 勉菴의 濟州初傳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되며 濟州 文士로서 奇正鎭의 제자였던 安達三 같은 이는 勉菴과의 관계를 통해 勉菴과 奇正鎭의 만남을 成事시키기도 한다. 勉菴의 濟州敎學活動이 가지는 궁극적인 意味는 邊方의 열악했던 敎學的 環境에 대한 一代의 警鐘으로서 敎學的 影響力을 펼쳤다는 것이다. 대개의 流配人들은 文化엘리트로서 당대의 知識人들이었기에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의 立地 자체는 流配地에서는 강도 높은 敎學的 刺戟일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流配地 環境을 적극적으로 受容하고자 했던 流配人들의 影響力은 朝鮮朝 濟州敎學秩序의 正脈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勉菴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의 경우도 바로 이 같은 예에 속하는 것이다.

性理學의 本質이 主體性的 회복(克己復禮)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朝鮮末期의 精神史는 「空論의 論爭」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當代的 社會的 脈絡 속에서 勉菴의 斥邪論은 당당한 저항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의 濟州 流配 동안의 敎學活動은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현실화된 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濟州島 義兵活動을 점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그리고 勉菴의 가학적 승계를 한



이용호등이 비밀결사 조직인 집의계를 태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면암의 척사사상은 제주도의 조천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日帝時代의 다양한 濟州島 民族教育運動으로 再現됨으로써 濟州教育의 면모를 새롭게 함은 물론 解放이후 제주도 4.3사건의 저변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 參考 文獻

- 高宗王朝實錄  
民族文化推進委員會(1989). 國譯勉菴集3, 民文庫.  
蘇東坡 評傳  
承政院日記  
阮堂先生全集  
朝鮮王朝實錄  
朱子語錄  
韓國古典翻譯院. 勉菴集.
- 姜在彥 (1985). 韓國의 近代思想, 한길사.  
光州地方法院刑事部. 判決文.  
金奉角(1990). 현해탄을 넘어서 濟州文化.  
김봉옥(1987).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김봉옥(2001),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第13卷.  
東亞日報社  
犯罪報告  
梁鎮健(2011). 제주 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卷下.  
李瑄根(1961). 韓國史 最近世篇, 乙酉文化社.  
濟州 4·3研究所(1990). 4·3 長征.  
濟州4·3研究所(1991). 濟州抗爭, 實踐文學社.  
濟州4·3研究所. 北村里 歷史(1,2)  
濟州道(2006). 濟州道誌.  
濟州道教育廳(1999). 濟州教育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濟州市 慕忠祠記.  
震檀學會(1968). 韓國史近代後期編, 乙酉文化社.  
創作과批評社(1991). 韓國近代史.  
洪以燮(1986). 韓國近代史, 延世大學校出版部.
- 高昌錫 · 梁鎮健(1989).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9.  
金景國((1989).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濟州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金玟洙(2001).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그 한계성, 대구대학교.  
양혜승(2002). 대원군의 국가경영과 이념적 재검토, 한국학술진흥재단.  
梁淳珽 · 梁鎮健(1987).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 梁鎮健(1987). 勉菴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研究, 耽羅文化.
- 梁鎮健(2002). 勉菴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研究, 韓國敎育史學會.
- 梁鎮健(2003). 濟州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敎育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敎育사 제25권 제1호.
- 양정선(1989). 勉菴 崔益鉉의 濟州流配書翰 研究, 德齊 申瑢俊 博士 華甲紀念論叢.
- 梁鎮健(2006). 朝鮮後期 濟州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敎育思想 研究 第20集.
- 梁鎮健(1991). 朝鮮朝 濟州 敎育思想史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澤徵. 斥邪理論의 展開와 그 意義,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第4輯, 朝鮮政治思想研究,
- 趙漢穆(1992). 勉菴 崔益鉉의 敎育思想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 洪淳昶(1977). 勉菴 崔益鉉 先生의 思想과 生涯, 霞汀徐延德敎授華甲紀念學術論叢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yeunam Choi Ik-Hyun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on the Education in Jeju**

Kim In K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Education  
Administration

Supervised by prof. Yang Jin Gun

**This thesis is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Myeunam Choi Ik-Hyun who represented his conscience and agony with action, leading his time actively and practically for the internal, external dangerous situation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on education in Jeju during his exile with the consideration that it would be a great implication for us living today.**

**This writer will unfold a concrete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contents with those questions as below.**

**First, It's the work of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combined Wejung-chuksa thought and nationalism on educational thought, methodology through his life under the temporal situation.**

**Second, it's the work of looking into the trait of Kyo-Hak (educational thought) in Jeju different from the whole atmosphere of Kyo-Hak order in the Chosun Dynasty through Myeunam's Kyo-Hak relevant activities.**

**Third, it's the work of looking into his Kyo-Hak relevant activities during his exile in Jeju.**

**Fourth, it's the work of reviewing of development process of Myeunam's Euibyeong activities, secret society and the movement for national education as the influence of Wejung-chuksa.**

It was the time of the collapse of feudal society and Western Powers, Japan persistently attempted to attack the Korean peninsula when Myeunam spreaded his activity.

At that time, he appealed against Daewongun for his misrule bravely, resulting in the close of Daewongun's 10 years' authority, and his exile to Jeju Mok.

During his exile, he was followed by many literary men in Jeju forming master and disciples relation with them, for example, Kim Hee Jung, who was the leading man in poetics became Myeunam's 1st disciple, and another Jeju literary man Mun Sa in who often had time together with Myeunam achieved the meeting of Myeunam and Gi Jung Jin from Nosa School.

Besides, Myeunam's Wejung-chuksa thought was the decisive motivation for the lighting up Euibyeong activities in Jeju. Besides, Lee Eung Ho et al who succeeded Myeunam's family tradition played a great role ideologically for the birth of a secrete society organization, Gibuigue. Myeunam's chuksa thought led to Mansae Movement in Jocheon, Jeju and 'by extension' represented to various movement for national education renewing the aspect of the education in Jeju, together with the role play for basic ideology of 4.3 incident in Jeju after the Liber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search for the influence of Myeunam during his exile in Jeju in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to contemplate what lesson the history of the hardship and subjugation until the advent of Jeju education of today present us.